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14일)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천년고찰서 펼쳐진 요가 한마당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둔 6월 13일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산사에서 진행하는 요가체험을 위해 300여 명의 전남 요가 동호인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구례군체육회, 전남도 요가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요가 대축제에는 전문 요가인을 비롯해 스님, 일반인 등이 참석해 각황전 앞 마당을 가득 매운 가운데 심신을 단련했다.

글=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제공=화엄사

‘GREEN부디즘’ 위해 불교계 뛴다

각 종단 기후위기 대응 천명, 사업 진행

종단협 5개년 계획 수립
출재가전문위 구성 예정
학계 장기세미나 시작해
동련, 지도자교육에 나서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전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불교계가 범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기후 · 환경위기에 따른 중장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근 조계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의제를 선언한 데 이어, 종단협이 기후위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함에 따라 불교계가 앞으로 기후위기 의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협은 이날 신규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담은 기후환경위기 사업을 확정했다. 기후 · 환경위기에 따른 지구촌 재앙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불교계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첫해인 올해 사업예산은 1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출 · 재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1~3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운동과 선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종단별 활동사를 구성해 탄소 중립과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불교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를 주제로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적 이념에 부합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천 활동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2단계 계획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구는 하나’ 제하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분야 연계를 추진한다. 3단계는 사찰환경 개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찰 환경을 활용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활동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이 선출됐으며 승가위원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엄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당연직)이 선임됐다. 재가위원인 학계전문인사와 불교환경 활동가 5명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위임해 추천키로 했다. 첫 회의는 7월 경 개최키로 했다.

불교학계에서는 종단 차원의 노력에 발맞춰 이론 정립에 나섰다. ‘제1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를 주제로 목요강회를 진행해 온 한국불교학회는 6월 17일 제2기 기후위기와 불교지혜 세미나를 시작했다. 서울 중구 금호트윈오피스텔에서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그 영향, 사회전환을 위한 담론의 준비 및 불교철학의 역할 모색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현장에서 알릴 지도자 양성도 시작됐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ABC로 그린하루-환경으로 생각하는 인욕과 정진’ 을 주제로 7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면 ·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는 80여 명 지도자들이 참가해,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에게 생활에서 환경문제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법을 배웠다. 강의는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와 ‘R.U.Doing’ 으로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 정무 스님은 “우리 삶 속 환경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과 지혜로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가 수화 ‘하느님’ 시정 요구 본격화

원심회, 문광부 등에 시정 요청 공문

대체어 추가 등 개선 요구
국립국어원, 내부검토 추진
광림사연화원과 공동으로
8월부터 수화 타당성 연구

한국표준수화에서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이 보우하사’ 의 ‘하느님’ 이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화(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本紙 기사(1344호 참조)와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어’ 의 부재에 있다는 점에서, 애국가 수화 뿐 아니라 수화 전반을 두루 살펴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전망이다.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하느님’ 의 수화표현을 시정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원심회는 “ ‘하느님이 보우하사’ 에서 ‘하느님’ 이 기독교 수어 ‘하나님’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하느님’ 의 뜻과 맞지 않고 종교 자유에도 어긋난다”며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느님은 어원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기 때문에 애국가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수화가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심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특정 종교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인 ‘하나님’ 의 수화를 사용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이 애국가의 소절에 특정 종교의 색채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해당 공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원래 의미의 ‘하느님’ 에 맞는 수화단어를 만들 것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공식 ‘수화로 하는 애국가’ 에서 ‘하느님’ 단어를 의미에 맞도록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원과 관계자는 “공문 접수에 따라 요청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검토 전이라 현재로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내부검토에 이어 전문가 자문, 한국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검토 · 논의를 통해 시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교 수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광림사연화원(이사장 해성)과 원심회는 공동으로 수화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애국가 수화 개선은 물론, 불교수화 등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올 8월부터 검토작업을 진행해 11월경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이번 사안은 수화사전에 ‘하느님’ 의 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불교계 특히 스님들 중에서도 국가공인통역사가 더 많이 배출된다면 공식 수화에 혹시라도 더 있을지 모를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원심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애국가 제창 시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원심회는 “불교를 믿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된 애국가를 제창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적 영역이기에 중립적인 수어사용의 책무가 있기에,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통명사로서 ‘하느님’ 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단어가 추가로 정립돼야 한다”며 “한국수화사전 개정판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송광사 역사·법맥 조명 미래 발전토대”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6월 24일 학술 세미나 개최
고려말서 조선 초 중심으로
송광사 위상·나옹선사 조명
인도승 지공 스님서 시작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보사찰,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의 역사와 법맥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송광사(주지 자공)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6월 24일 경내에서 ‘고려말 조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의 법맥’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11월 조계총림 방장으로 취임한 현봉 스님〈사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법석인 만큼,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세미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봉 스님은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해 한국은 문명의 전환시기에 와 있다”며 “그런 사회적 변환시기에 고려·조선의 변환기에 큰 영향을 미친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을 조명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환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는 동국대 황인규 교수의 ‘고려말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계의 주석’, 문소운 동국대 박사과정의 ‘지공의 고려불교에 대한 영향 검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자공의 대도 귀국 후 행보와 화장 후 영골 전래’ 주제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동국대 이철헌 교수가 ‘나옹의 고려불교 주도와 여말선초 나옹 문도의 역할’을, 성신여대 강호선 교수가 ‘나옹 계승자로서의 혼수와 무학 및 조선초 법맥’을,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이 ‘증명화상의 형성 배경과 불교적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봉 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인도의 스님인 지공 스님의 법맥이 조선 사회에 정립된 과정까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공 스님은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동안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스님은 “나옹 스님 이전 그의 은사인 지공 스님을 조망하게 된 것은 지공 스님이 고려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고려시대 9산선문이 약해지고, 화엄학, 천태학 등이 일어나면서 불교계 혼란은 고려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인도 나란다 대학(5세기~12세기. 세계 최초의 대학중 하나로, 불교교학의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 출신의 학승이 운집해 배웠다)의 법맥이 지공 스님을 통해 전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지공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이고, 가섭존자에게서 불법을 받은 108대 조사이자, 나란다 대학 학맥을 있다’는 방법으로 영골을 모셔 숭배하고 모신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자장율사는 중국에서 〈화엄경〉 사구계와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를 받아 오대적멸보궁을 세워서 부처님의 적통을 이었다”는 이야기는 학술적 논거를 떠나 한국불교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지공 스님의 제자들이 고려, 조선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고려말 회암사에서 크게 불교를 일으킨 나옹 스님과 조선 태조의 왕사가 된 무학대사, 함허(涵虛)대사, 한글 창제 때 주역인 신미(信眉)대사, 학열(學悅)·학조(學祖)·정심(正心)대사 등이 법맥을 이은 대표적인 제자들이다. 스님은 “특히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신미대사는 당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와 언어를 익힌 지공 스님의 수행이력이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송광사는 성리학자들의 배불에도 법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학술대회는 이런 법맥을 이어온 분들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에서 송광사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통을 이어달라는 겁니다. 송광사는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는 데 늘 중심에 있었지요.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끝으로 스님은 “전통을 잇는 동시에 변환기의 한국불교에 발맞춘 변화도 필요하다”며 “전통과 현대적 변화를 잘 접목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당부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인도, 티벳, 원나라 수도 대도, 운남성, 서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선지자”라며 “나란다 대학을 나온 지공 스님의 법맥은 한국불교의 보고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봉 스님은 “현재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 지공 스님을 비롯해 나옹·무학 스님의 영골을 모신 부도가 있다”며 한국불교 특유의 ‘영골’을 숭배하는 전통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다.

스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골을 모시고 와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보다는 주변국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따라서 원시불교는 인도보다 변방에서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변방지역은 ‘적통을 잇고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6월 11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이 6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국민행복을 기원했다.

다례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100여 명의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종조께서 염원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의 원력으로 사해오호 만중생들이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이 사라져서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니,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하게 하여지이다”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1700년 한국불교 정체성을 이어온 조계종은 종조의 뜻에 따라 선과 교를 아우르는 통섭과 함께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며 “뭇 생명과 함께 정토세계를 위해 함께 수행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종조를 바로 모시는 후학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법화종 집행부, 청사 진입…정상화 기대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점거 해제

“정당성” 이유로 청사 개방
집행부, 6월 20일까지 폐쇄
내부정리·종무상황 검토중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집행부가 6월 16일 오후 2시경 대전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총무원 청사는 법화종 전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 종법상 근거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악해 불법점거 상태로 유지돼 왔다.

법화종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사 진입은 청사를 그동안 무단점거 중이던 비상대책위 소속 일부 인사들의 자발적인 청사 개방으로 일체의 충돌 없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대책위 소속 송원·희공·도명 스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집행부가 청사에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혜문 스님의 청사진입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각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6월 10일 해당 가처분과 관련해 “법화종 종헌종법상 종정에 대한 불신임 절차 및 징계 절차가 없고 중앙종회 또한 이를 의결할 권한이 없다”며 “법화종 구성원들이 종정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비상대책위 소속 송원·희공·도명 스님은 총무원 청사 점거를 주도 혹은 동조했지만, 법원이 종정 도선 스님의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의 점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전 비상대책위 점거를 해제했다는 연락을 받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집행부에 소집공고를 내렸고 오후 2시경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 집행부 임원은 기획실장 관효 스님, 사서실장 서안 스님, 총무부장 서리 현묵 스님, 교무부장 지만 스님, 교화국장 지산 스님, 재무부장 서리 현봉 스님, 감찰부장 광래 스님, 감찰국장 혜안 스님, 조사국장 원담 스님 등이다.

집행부는 청사 내부 서류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내부준비를 위해 6월 20일까지 청사를 폐쇄키로 했다. 집행부는 “오랜시간 혼란했던 종단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종단 안팎에서 자행됐던 불법과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청년 위한 불교’ 이끌 미래세대위원회 2기 출범

조계종, 6월 15일 25명 위촉
위원장 성행스님…의제연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5일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 미래세대위원회 2기 위원들을 위촉했다.〈사진〉

제2기 미래세대위원회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이자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일선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해 온 스님과 재가불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촉식에 이어 “한국불교의 희망은 미래세대에 달려 있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백년대계본부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구인 미래세대위원회가 미래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모셨다. 청년세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종단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성행 스님은 “인구감소, 종교와의 친밀도 약화, 가족의 해체 등 종교지형이 매우 암울한 상황에서, 미래세대 역시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미래세대위원장으로서 불교가 미래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저평가된 부분을 잘 살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미래세대 의제 연구와 불교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종령기구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으며, 2017년 불교가치의 미래세대 기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1기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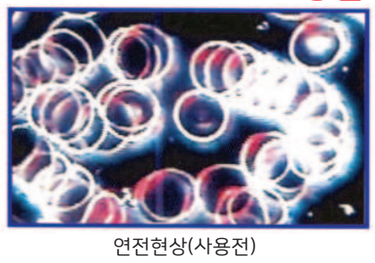
백년대계본부는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함과 더불어 종단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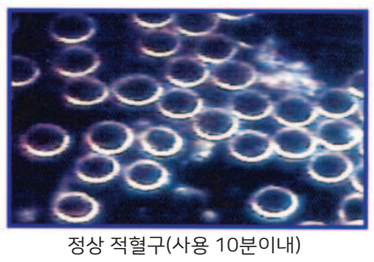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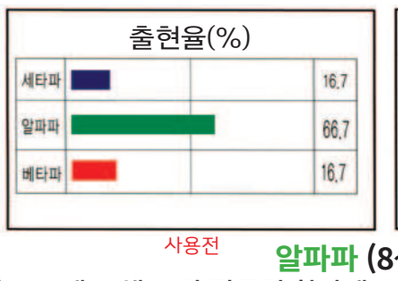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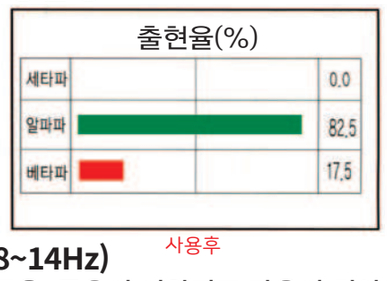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BLOOD MATE® 순비누:120g 9개 ~~270,000원~~ ➡ 100,000원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주)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삼강

"조선왕실실록·의궤, 본래 자리로"

오대산사고본 환수위, 6월 16일 출범

공동위원장에 정념 스님
788명 위원회 인사 구성
대여반대, 환지본처 강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6월 16일 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평창 오대산사고에서 보관하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환수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6월 16일 평창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공동위원장 결의문,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환수위는 공동위원장으로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왕기 평창군수, 김동호 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조정래 작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최윤 민주평통 강원부의장 등 7명이 맡았다.

집행위원장은 고광록 제4교구 월정사 신도회장이, 사무총장과 국장에는 지형근 전 평창군 부군수가 임명됐다.

고문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순 전 부총리, 김주영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이수형 강원도기독교협의회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과 집행위원까지 합쳐 환수위원회는 모두 788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결성됐다.

공동위원장 간담회에서 퇴우 정념 주지 스님은 "일제에 의해 약탈당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월정사와 민간이 노력한 끝에 2006년과 2011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있었던 자리, 오대산까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일은) 우리의 역사 의식, 우리의 민족 정기가 미래로 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통해 '문화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공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정래 작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여·순환 전시 방안에 대해 소장처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순환전시라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출발,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성은 상실한 채, 중앙집권적 문화의식을 갖고 (소장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문화재를)제자리로 찾아오는 것, 그것만이 문화재의 성격과 품격, 역사성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유네스코(UNESCO) 권고사항처럼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도 원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들은 환수위 사무국으로부터 환수위 구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왕조실록·의궤 박물관 입구에서는 환수위원회 현판 제막과 함께 공동위원장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환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국보 제151-3호)은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도쿄대 교수 시로토리(白鳥庫吉)와 결탁해 오대산사고본 실록 788책을 도쿄대로 빼돌렸으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3호)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1965년 한일 문화재·문화협정의 환수문화재 목록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환수 기회를 놓친 이후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 노력으로 81종 167책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조항(7장·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이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 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에 염원 모은다

직할 신도회, 남산 성지순례
5월 답사 이어 6월부터 3회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자에 마음을 모은다.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사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는 올 6월부터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성지순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지순례는 바로세우기 불사에 불자 염원을 모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6월에 진행될 1차 순례는 〈천수경〉 독송과 108염주 및 108배를 통한 108 마음 잇기로 진행되며, 9월 경 2차 순례는 〈금강경〉 독송으로 이어진다. 10월 3차 순례는 다라니 108독으로 진행된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직할교구신도회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남산을 답사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친견했으며, 칠불암과 불국사, 석굴암 등 인근 주요사찰 순례도 진행했다.〈사진〉

직할교구신도회측은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세워드리자는 발원으로 기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6월 13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천도재를 봉행했다.

美장갑차에 희생된 故효순·미선 천도재

사노위, 첫 천도재 주관해
6월13일 양주 평화공원서

여중생 故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지 꼭 19년이 지났다. 그 참혹했던 사고에 미군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여러 조사결과에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천도재를 열고 그 넋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9년이 지난 6월 13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자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을 발원했다.

이날 19주기 추모행사는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계종이 추모제 일환으로 故 효순·미선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 아니라, 2020년 6월 평화공원이 준공된 이후 첫 추모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이 법고시연으로 천도의식의 문을 열었다. 이어 어산종장 동환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천도재가 봉행됐으며, 천도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효순·미선 유족과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의 추모행렬도 이어졌다.

지몽 스님은 "천도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자 산자의 마음 곳에서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시간"이라며 "특히 오늘 천도재는 19년 전 15세 두 소녀의 비통한 죽음이 이 땅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일어난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아픔이었기에 종교를 초월한 위령제로 넘을 위로하고 평등과 평화, 자주를 염원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평안·무탈 기원…조계사 단오재 '화기애애'

6월 14일 소금 단지 봉안
80세이상 신도 세족식도


서울 조계사는 6월 1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화기를 누르고 화목과 사랑을 기원하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 조계사가 단오를 맞아 도량 내 화기(火氣)를 누르는 의식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액운을 막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1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화기를 누르고 화목과 사랑을 기원하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에서는 이날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서 소금을 묻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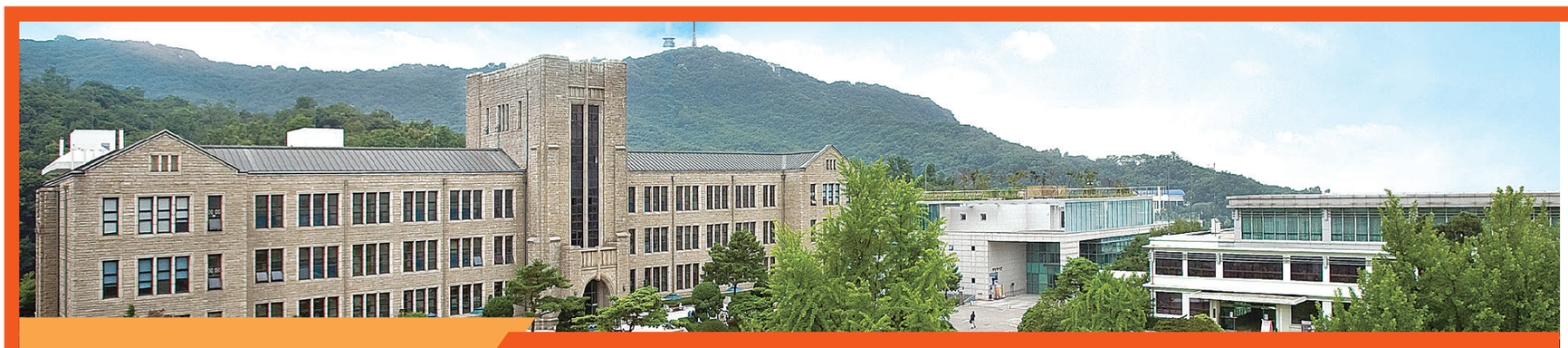
이날 의식은 도량 결계와 신중기도 등 단오재에 이어 작법과 화엄성중 정근 등으로 이어졌다. 정근이 진행되는 동안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은 소금단지를 이운해 물 수(水)자를 봉안한 데 이어, 소금단지를 도량 내 동남북서 4곳에 봉안하며 조계사와 사부대중의 평안을 기원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1년 중 가장 양기가 강하다는 단오날, 조계사 도량을 지키는 해태상 아래 물의 정수인 소금을 묻었으니 도량 내 열기를 다스릴 것"이라며 "흔히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표현은 마음 속에 화기가 쌓여 나타나는 현상인만큼, 오늘 소금단지와 함께 우리 마음 속의 불길도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단오재에 이어 나눠드릴 부채와 소금으로 나와 가족의 마음 속 화를 날리고 올해도 시원하고 행복한 나날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들은 이날 신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80세 이상 신도 10명을 초청, 직접 발을 닦아 주는 세족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단오재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단오 부채와 소금을 선물했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봄볕바자회 수익금 5000만 원을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1학년도 2학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학과	세부 전공	캠퍼스		비고
		서울	고양	
행정학과	행정, 정책, 지방자치	O	O	5학기제 야간수업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 북한·통일, 방위사업	O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청소년	O	O	
부동산학과	부동산	O	O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	O		

* 수업 요일 : 서울캠퍼스 – 월, 목 고양캠퍼스 – 화, 수
* 수업 방법 : 대면 수업 및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운영
* 대학원 간, 캠퍼스 간, 전공 간 교과목 일부 교차 수강 가능
* 석사학위취득방식 : 논문졸업제 또는 학점졸업제

▣ 전형방법 서류심사(50%) + 면접심사(50%)

▣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고
2021.06.07(월) ~ 06.28(월) 인터넷 접수 전형료 : 6만원	2021.07.01(목) 18:00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2021.07.08(목) 15:00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안내문 참조	제출서류 및 전형료 반환 불가

*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 http://gspa.dongguk.edu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3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1부
- 학업계획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1부
- 대학성적증명서(백분위 점수 기재)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학력조회 동의서(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 원서접수 절차
- 인터넷 원서접수(http://gspa.dongguk.edu) 후 입학원서 출력 및 사진 첨부, 날인
- 학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입학전형료 납부 :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영업시간내에만 입금가능)
-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 함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 2021년 8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학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1.08.26(목)까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 대학을 졸업한 지원예정자는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사전 상담 후 원서 접수 진행
  (각 종 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학력조회 동의 등)
- 편입학 지원예정자는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사전 상담 후 원서 접수 진행
  (전적 대학원 이수 전공 및 학점 인정, 편입학 정원 등)
- 입학 전형 합격 후 합격자등록기한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 됨
-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 2021.08.26(목) 18:00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3층 첨단강의실
- 입학생 수강 신청 : 2021.08.26(목) ~ 28(토)
- 2학기 개강 : 서울캠퍼스 2021.08.30(월)
  고양캠퍼스 2021.08.31.(화)

▣ 문의
전화 : 02-2260-3102 홈페이지 : http://gspa.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행정대학원

2000년대 환경운동 주도…도약 위한 변화 '요구'

20주년 맞은 불교환경연대 성과와 과제는

6월 11일 원탁 토론회서
관계자 격려 · 축하 전해
인물중심 활동은 아쉬워
확장성 · 후학 양성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환경연대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자연 파괴를 저지하고 뭇생명과 함께하기 위한 실천행에 앞장서 온 만큼, 수많은 성과가 축적됐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11일 원탁토론회 '돌아보고 내다본다'에서는 이병인 조계종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명호 생패지평 부소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맹주형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연대팀장 등 불교환경연대와 함께해 온 이들의 축하와 제언이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성과를 진단하고 도약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주**



불교환경연대가 6월 11일 지난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9월 6일 초대상임대표이자 환경운동의 상징 수경 스님을 주축으로 출범했다.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6월 창립한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가 사실상의 전신이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제한 '한국불교의 환경 · 생명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따르면 수경 스님이 중심이 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내원사 산감이었던 지율 스님이 '천성산살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룡뇽 소송의 중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저지하는 오체투지, 4대강 개발 저지 등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끌면서 불교환경연대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다.

유 위원장의 분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대 환경운동은 불교환경연대를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의 다양한 이슈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수경 스님과 도법 스님은 환경과 생명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으며, 환경 분야에서 불교계 위상은 대체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정성운 前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환경연대 20년 돌아보기' 발제에서 불교환경연대 출범 당시 불교계는 각종 개발로 수행환경 침해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음을 짚었다. 사찰 피해에 대한 대응을 명분 삼아, 자연환경과 그 속에 깃든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본질과 목적을 둔 셈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법회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은 곧 참회와 환경보살의 서원"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사업계획으로 사찰 주변의 생태문화 조사,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 교육,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불교환경연대와 함께해 온 모든 이들이 그간의 성과에 동의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은 과거의 활동이 수경 스님 등 상징적 인물에 의존했다는 뼈아픈 성찰에 있었다. 정성운 前 사무처장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수경 스님 이후'라고 표현했다. 그는 "불교환경연대에 비춘 빛은 수경 스님이라는 훌륭한 수행자이자 헌신적인 활동가의 몫이 가장 컸다"며 "수경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에 그 공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는 스님의 사퇴 이후 급격히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0년의 불교환경활동은 한두 사람의 인물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물 · 단체의 활동으로 제한돼 불교 전체의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적 활동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수경 스님 사퇴 이후 5년을 표류하던 불교환경연대는 2015년 7월 법일 스님을 새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재활성화에 나섰고,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사무처 체제에서 안정세를 찾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관계자들은 확장성과 세대교체, 대안적 실천 모색 등에 무게를 뒀다.

이병인 교수는 "앞으로 활동들은 불교가 가진 장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화시켜나가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며 "불교생태이론과 담론들을 공염불이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침과 활동으로 단순화하고 연대활동 등을 통해 불교계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부이사장은 "명망있는 스님들의 활동이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해 조직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운동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사부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활동을 계승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대중화를 위한 토대 및 추진 주체가 돼야 할 스님과 종무원, 활동가, 포교사, 강사 · 퍼실리데이터 등을 육성 및 운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잠재적 활동 주체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나아가 이를 종법으로 제도화하고 주지연수 및 승가대 · 종립대학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크워크소장은 "2001년 당시의 문제해결의 의식과 활동방식으로는 2021년 도래한 지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교내부를 변화시키고 우리사회에 새로운 생태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인적 · 물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지리산 댐건설을 저지한 성과를 시작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 새만금 · 4대강 반대, 빈그릇운동과 숲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존재로서 우리 사회의 자연환경이 더 보존됐고 생명존중 문화가 높아졌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지난 20년을 겸손히 돌아보고 다시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6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불 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작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10월 13일(수) ~ 14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1월 24 ~ 29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접 수 10.13(수) ~ 14(목)
전 시 11.24(수) ~ 29(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조계종 전법 현장 활동 지원한다

포교원, 6월 15일 전법단 대표자 회의 개최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전법포교 현장을 지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법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법단 대표자 회의에는 전법단 총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법단장인 포교부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9개 전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010년 4월 전법단이 출범해 10여 년이 지났다. 전법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군포교나 병원, 경찰, 교정교화, 장애인, 체육인, 국제분야와 청소년대학생, 어르신 계층별 전법단 등 전법분야가 더욱 많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교가 우리들의 삶에 심화될 수 있도록 포교원도 노력하겠다. 사회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 측에서는 전법단 회의에서 먼저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에 기반한 각종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전법단 지도법사 지원절차에서 전법단 지도법사 중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하지 않은 스님이 2년 이상 전법단 활동을 성실히 했을 경우, 교육원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에 의거 연수교육 이수로 인정받도록 한 제도 시행을 소개했다.

각 전법단에서 지도법사 활동보고서를 포교원에 매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포교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에 이첩한다. 이와 함께 활동보고서를 포교원에 접수하면 교구본사와 직할교구에 인사고과 반영 협조 요청을 포교원이 공문으로 발송한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9개 분야 전법단의 연간 주요사업이 공유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법현장에서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특색있는 사업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난됐던 보덕사 석조관음상 '환지본처'

문화재청 · 울산경찰청 공조 수사로 15일만에 회수

도난됐던 울산 보덕사 석조관음상이 회수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과 공조 수사해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보덕사 관음전에서 도난당했던 '석조관음보살반가상' 1점을 온전하게 회수해 이달 중 다시 보덕사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한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은 보덕사 관음전에 있던 것으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야간에 몰래 해당 장소에 침입해 불전함과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을 자신의 차량으로 훔쳐내 창고에 보관 은닉했다. 문화재청은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탐문과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해 15일 만에 회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찰에 해당 불상을 모시기 위하여 절취했다고 진술했다.

보덕사의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은 높이 약 57cm의 중소형으로 바위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가좌의 자세를 한 관음보살을 표현한 비지정문화재로,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나오는 경주석이라고 부르는 불석(佛石, Zeolite)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수인(手印, 불보살을 상징하는 손모양)은 양손을 편 상태로 손가락을 붙여서 무릎과 바위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이 점은 불석의 석재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난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된 울산 보덕사 석조관음보살반가상.

보덕사 보살상은 사각형(방형)의 얼굴, 가늘고 긴 눈, 미소 띤 작은 입술, 옷 입은 방법과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후기 17~18세기의 보살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가좌의 자세와 수인의 모습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으며, 불석이라는 재료와 암반 위에 반가좌 자세를 한 석조관음보살상이라는 도상 측면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향후에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해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65일 불꺼지지 않는 명상 유토피아 만들 터”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취임한 각산 스님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조감도.

총건축 면적 1만1000㎡, 3백명 동시 수련
내년 4월 간화선대법회 행사와 공식 개원
간화선 대중화 토대 만들 전진 기지 목표


각산 스님은 …해인사 선지식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통도사 제방 선원과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밀림과 호주 숲속서 10여 년간 수행 정진했다. 2013년 서울 강남에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을 개원해 근본 불교와 간화선 통합 수행법으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상센터로 만들었다. 2016년에는 세계 명상 고승들을 초청해 세계 명상대전을 개최했고, 2018년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 2015년과 2017년 명상힐링캠프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회장과 한국명상총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올해는 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禪)을 전래한 지 12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한국불교 수행중 간화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불교는 불교 신자도 출가자도 줄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 2018년 7월 12일 문경 봉암사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한국불교의 해결책을 선에서 찾고자 봉암사 앞에 한국 전통의 참선 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명상마을 조성에 첫 삽을 떴다. 정식 명칭은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다. 그로부터 3년간, 첫 계획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현재 80% 이상 불사가 진행중이고, 내년 2월이면 완공 후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경북 문경의 봉암사 앞에 조성되는 명상 타운이다. 종단 유일의 종립선원인 봉암사는 부처님오신날 딱 하루만 산문을 개방하는 봉쇄선원으로 ‘한국 선불교의 중심’으로 손꼽히는 수행도량. 이 앞에다 일반인을 위한 선불교 체험 및 수행 공간을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추진중이다. 대규모 불사의 완공을 7개월 앞둔 지난 5월 13일 문경 세계명상마을 초대 선원장에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회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5년이다.

6월 15일 서울 강남 참불선원서 각산 스님을 만나 간화선 대중화의 전초 기지가 될 명상마을의 향후 운영 방안과 간화선 세계화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납도 경륜도 미약하고 고준한 역사를 갖춘 간화선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좌회 수좌스님들은 화두참선 하나로 일생을 보내신 것에 비하면 저는 해인사서 출가해 제방선원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고, 부처님 당시의 근본 불교를 찾아서 인도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 밀림의 숲속과 호주 숲속 승가수행처 및 세계명상센터를 찾아 수행하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구법 수행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세계적으로 드문 국내 유일의 봉쇄 수도원인 봉암사 특별종립선원의 원로 선덕 큰스님과 대중 스님들을 잘 시봉하며,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참선템플스테이 명상힐링센터와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간화선 세계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임명 직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문경 명상마을 불사 현장에 내려가 여법한 완공을 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명상마을을 건립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세계명상마을 랜드마크인 웰컴센터 다목적 체험관은 90%의 공정률로 내부 인테리어 시설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2차 공사인 명상홀인 중선방과 참선템플스테이 숙소는 현재 착공해 부지공사중이고, 오는 9월에 상량식 봉행을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처럼 공사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올 12월말로 준공하고 임시 개원은 내년 2월 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식 개원도 내년 4월 간화선대법회 행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세계명상마을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최고의 명상 유토피아가 될 세계명상마을은 2만여 평의 대지위에 총 건축 연면적은 1만1000㎡(약 3360평)로 300명이 동시에 숙식하며 수련할 수 있습니다. 각 공간들은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현대 건축으로 공사중입니다. 다목적 체험관이자 종합안내센터인 웰컴센터(2층 규모, 약 400평)를 비롯해 명상실과 무문관, 전시관, 숙소동, 공양간과 휴게실, 강의실, 스마트 명상시설, 걷기명상코스 등 선(禪)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시설이 들어섭니다. 숙박시설도 5성급 호텔시설인 개인 특실 16개를 비롯해 개인실(10평) 12개 등 총 28개와 대형방 80개를 갖추고 있지요.

코로나가 없다면 300명이 동시에 수행 가능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10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특실 및 개인실은 적당한 비용을 논의중이고, 단체실은 1박당 2~3만원 정도로 책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은 향후에 더 지을 생각입니다.

△이번 명상 마을의 설계도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명상마을의 건축물은 국제 공모로 당선된 토마스 한라한 미국 플랫대 건축학과 교수의 선(禪) 건축물인 간화선국제선센터를 모델로 했습니다. 특히 한라한 교수는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의 어머니 김윤남 여사가 시주 불사한 미국 뉴욕주의 원불교 원다르마 사원을 설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문경 세계명상 마을 역시 한국 선의 간결함과 단아함을 건축에 녹여 설계해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세계명상마을을 건립은 불교계 큰스님들께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쾌척해 주신 게 계기가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한국 수행 큰스님들께서 오로지 참선 간화선의 선양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10여 년에 걸쳐 온 정성을 쏟은 거룩한 원력의 대작불사입니다. 봉암사 前 수좌 적명 스님의 2천만 원을 시작으로 인천 용화선원 조실 송담 스님이 시주와 화주에 앞장서 13억5000만 원을, 신흥사 조실인 오현 스님께서 20억 원을 입적하기 전에 쾌척해 주셨지요. 이외에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추진위원회 초대 상임대표는 혜국 스님이셨는데 법인 설립전까지 많은 스님들의 지원이 있었어요. 조계종 진제 종정 예하를 비롯해 자승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현기 스님(상무주암 선덕), 대원 스님(학림사 회주),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원각 스님(해인사 방장), 보선 스님, 정찬 스님(대흥사 선덕), 의정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을 비롯해 전국 선원장 스님 등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후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덕공 보살 등 여러 재가 불자들도 팔을 걷어 부치고 보시했죠.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가 공사비가 10억 여 원 더 필요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선원장 스님께서는 취임 직후 세계명상마을이 각 개인의 일상을 바꾸는 실천도량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간화선 세계화와 화두선과 불교 명상인 참선의 중심 거점지 역할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세계 어느 수행처에도 대중을 모아놓고 선승 집단이 힘을 합쳐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우선 53선지식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입니다. 매주 2박3일 정도 상시 운영 예정인데, 수좌복지회 지상 스님 등 53선승들이 돌아가면서 실참 프로그램을 대중들에게 지도할 것입니다. 입승이 죽비를 치면서 대중들과 전통 수행법을 고수하면서 진행시킬 것입니다. 또한 세계 고승들의 가르침을 제가 인가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함께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도입할 것입니다. 간화선을 현대적 기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목표이지요.

명상은 크게 의식을 집중하는 ‘사마타’와 지혜명상인 ‘위파사나’로 나뉘는데 간화선은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간화선이 지닌 독특한 수행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에 초기불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초기불교는 미얀마의 관점적인 아미달마 불교일 뿐입니다. 우리 세계명상마을에서는 초기불교적 수행법과 선불교의 수행, 대승불교가 가진 사상 등이 총 망라된 수행 체계를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월 1회 또는 두 달에 한번씩 1주일간 무료 수행프로그램을 100명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명상 공부가 하고 싶어 언제든 찾아오더라도 순환 구조 형식으로 53선승들을 활용해 상담과 선문답 등을 지도하게 할 것입니다. 선은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수행을 한 수좌 출신의 7명 선승들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구상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지요.

=5월초와 9월초에 각각 1년에 두 번씩 대한민국 희망캠프도 무료로 열 것입니다. 기간은 14일 아니면 21일을 구상중인데요. 그래서 현재 야외 수련장을 만들고 있죠. 동시에 2~3천 명 정도가 텐트 치고 야영하며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입니다. 이미 텐트도 1천개 정도 후원 약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기출가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며, 1000명 당 0.1프로인 10명의 출가자를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적 수행처인 프랑스 떼제공동체,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달라이라마의 까르마파 등을 두루 구법 수행한 체험을 응용해 도입할 것입니다. 봉암사는 봉쇄수도원이고, 세계명상마을은 하부기관으로서 출가자와 도인, 국민들의 지혜 계발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개방 명상센터 역할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365일 누구든지 편안히 와서 힐링할 수 있는 불꺼지지 않는 수행 도량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명상으로 이겨내요

부산 경남, 상담 · 치유 목적 다채로운 명상 강좌 문 열어

어린이 · 청소년 위한 특별 명상
마음 쉼과 치유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심리상담소 새롭게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마음 근육을 키우는 명상 및 심리 프로그램이 부산, 경남에 새롭게 마련된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우울감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명상 및 심리 프로그램이 부산, 경남에 새롭게 마련된다.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이사장 신공)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동련이 마련하는 이번 명상 프로그램 이름은 ‘감자피자’이다. ‘감사명상으로 자존감을 키워 꿈을 활짝 피우자’라는 뜻의 앞 글자를 모았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연령은 초등부 4~6학년(25명)과 중등부 1~3학년(25명)이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7월 4일~25일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초등부는 오전 10시~11시 30분, 중등부는 오후 7시~8시 30분에 각각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명상하는 거울명상, 과자로 만다라를 직접 만드는 과자 만다라, 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젠탱글아트 명상 등이 마련된다.

강사는 배아영 강사와 장초희 강사가 담당한다. 배아영 강사는 현재 싱잉볼 아로마 명상 안내자 및 어린이 마음챙김 놀이 방과 후 특성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명상 지도사 2급, 아동심리상담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부모교육지도사 1급 등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명상 및 상담 지도를 진행 중이다.

장초희 강사는 현재 (주)카루나힐링 명상안내자, 삼성전자 힐링캠프 명상, 법무부 춘천꿈키움센터, 육군 그린캠프에서 명상을 안내 중이며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임직원 및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신청 마감은 6월 25일이며 신청자에 한해 감자피자 워크북과 명상 꾸러미 세트를 발송한다. (사)동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종교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며 “자존감을 올리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051)864-4569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한나래평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의 상담’과 ‘붓다볼 치유명상’을 동시에 참가하는 콜라보 치유 과정을 마련한다.

홍법사 한나래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7월 8일 오후 7시30분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총 12주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25만 원, 모집인원은 10명이다.

강사는 김경숙 붓다볼메디테라피스트와 안민자 임상심리상담사(슈퍼바이저 · 만다라심리상담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홍법사 한나래평생교육원은 붓다볼 입문반을 모집한다. 입문반은 8주 과정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각 진행된다.

김경숙 붓다볼메디테라피스트는 “붓다볼(싱잉볼)은 의식을 현재에 이르게 하는 깨어있음을 돕고 치유나 명상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전문 임상심리사의 상담과 함께해 더욱 깊은 치유 명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010-8643-6974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는 6월 11일 청소년심리상담소를 개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코로나 기간에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역복지를 위해 심리상담소를 개소했으며, 운영은 전문 상담가 김경미 소장이 담당한다.

김경미 소장은 현재 울산가정법원 가정지원 위탁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예술심리치료협회 교수, 미샘미술심리상담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소년심리상담소는 주 2~3회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선정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복지에 앞장 설 예정이다. 055)387-7926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봉사, 학술, 포교 등 3부문, 10월 30일 모집 마감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마감은 10월 30일까지이며, 시상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세 부문이다.

봉사(실천)상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 불살생 정신을 바탕으로 반목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데 몸소 실천한 자 혹은 단체를 추천받는다.

학술(문화)상 대상자는 전통문화를 연구, 발굴, 계승발전 시킴으로 정신문화를 복원시키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한 개인 및 단체이다.

포교(원력)상은 돈독한 신심으로 수행정진과 전법에 매진함으로써 정법수호 및 불교인재 양성과 가람수호에 헌신하는 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 추천 기준은 국적, 연령, 직업, 학력, 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스님일 경우 조계종 소속으로 제한된다.

추천권자는 소속기관 및 단체 대표, 대학 학과장, 후원(봉사)회장과 조계종 재적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 은사 스님이어야 가능하다.

수상자는 12월 1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날인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후보자 추천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영축문화재단.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영축문화대상은 독립운동과 영축총림통도사의 수행가풍을 올곧게 계승한 구하당 천보대종사와 제9대 종정과 통도사 방장을 역임하며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제정됐다. (010)4581-259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양산 내원사, 천성산 산신재 봉행


내원사는 6월14일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봉행했다.

내원사(주지 아용)는 6월 14일 천성산 정상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봉행했다. 산신재에는 내원사 주지 아용 스님, 원주 자민 스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선방 수좌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매년 내원사는 단오절을 맞아 산신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내원사 경내 소금 묻기 등을 진행하고 생태계가 보존되길 기원하고 있다.

주지 아용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하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의 안녕과 평화가 가득하길 소원한다”며 “자연과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회장 연임
2006년부터 문화재지킴이단 조직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6월 12일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2021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발대식 및 제7대 경남파라미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식과 김재호 제7대 경남파라미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사)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도문)는 6월 12일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2021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발대식 및 제7대 경남파라미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남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황룡사 법진 스님, 김재호 회장, 최두찬 초대회장, 최형두 국회의원, 지도교사 외 경남파라미타 문화지킴이 단원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위촉장수여 △선서 △분회기 전달△상장 전달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총재 도문 스님은 “청소년들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도록 돕는 소중한 계기를 선사할 것이다”며 “문화재 지킴이로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하고 안으로는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7대 회장으로 연임한 김재호 회장은 “청소년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운동이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꿈으로써 문화재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회장은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2006년부터 문화재 지킴이단을 조직해 초, 중등교사 40명, 문화재지킴이 1000여 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세종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교육감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임기는 2023년 2월 총회까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본각 스님 초청 법회

6월 16일 정각원서 진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철우)은 6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초청해 2021학년도 1학기 교직원 종강법회를 봉행했다.

본각 스님은 동국대 72학번으로, 일본 고마자대학 대학원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후원회 공동회장,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와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봉행했다.

본각 스님은 “화엄교학 중 정행품은 일상 그대로를 기록한 것으로, 선용기심(善用其心) 즉, 매 순간마다 마음을 훌륭하게 쓰면 일체 공덕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욕심으로 살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 의지로 삶을 만들어가는 원력과 지혜의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

“나라 없이는 종교도 없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모 이어

광명사, 순국선열 위령 천도법회 봉행
진여원, 호국영령 및 보훈가족 위로해
운흥사, 영산대재 봉행 국태민안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교계의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사진은 광명사가 진행한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법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교계의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6월 13일 경내 3층 지관전에서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 천도법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를 실천하고자 봉행됐다.

법회는 한국전쟁 영령에 대한 헌화, 헌향, 추도사, 권공축원 아미타불, 추모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동해사 주지 행주 스님,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원종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헌화 및 분향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추모사 △추도사 △법문 △기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춘광 스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스님과 백성들은 오로지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목숨까지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 덕분에 오늘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법요식은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애국불교 정신 실천으로 국가 없이는 종교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신 대조사님의 유훈에 따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광명사는 21세기 새로운 불교운동을 실천할 것이다. 광명사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의 서원을 세우며, 자비실천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도 6월 10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앞에서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 23회를 맞은 호국영령위령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 발열 체크 및 거리두기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됐다.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 정명희 북구청장 등 내빈과 육군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유가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1부 호국영령위령재를 시작으로 2부 본 행사에서는 육법공양과 헌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이어졌으며 왕생극락 발원문, 내빈들의 인사말, 유공자 표창,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남보타월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재 및 보훈 행사를 간소하게 지내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다.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며 “호국영령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보훈 가족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함께해 준 진여원 식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성 천년고찰 **운흥사(주지 월암)**는 6월 19일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를 경내 일대에서 봉행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6천여 명의 승병이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도량이다. 매년 음력 3월 3일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방역에 따라 연기해 개최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불교를 위시해 모든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고 극복해 왔다”며 “호국영령을 기리며 국태민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제 금불동우회 금산중고 장학금 전달

김제 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금불동우회(회장 박상준)가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15일 금산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상준 회장과 장세군 수석부회장, 권태정 부회장과 장학생, 금산중 · 고등학교 박기남 교장, 박동창 교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금불동우회 장학금은 부처님 오신날 금산사에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날 전달하게 됐다.

이날 금불동우회는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학업과 불교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2명을 선발해 각각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준 회장은 “장학금 수혜를 계기로 장래 불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여성들 어엿한 ‘2급 바리스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법인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지난 5월 9일 한국커피 협회 주관 2급 바리스타 자격증시험에 응시한 결혼이주여성 30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이일수)이 도내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보조금 3만 2000 달러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문가가 되어 관련분야 내 취업이나 창업하는 꿈을 꾸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은 언어장벽과 전문자격증이 없어 취업이나 창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주 모악로타리클럽 이일수 회장은 “지역사회에 이주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 다문화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전주모악로타리 클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암사 〈묘법연화경〉 등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전라북도는 6월 7일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가 소장하고 있는 선문보훈, 묘법연화경, 불설관무량수경, 지장보살본원경과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을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선림보훈은 2권1책으로 발문 ‘宣光八年戊午(1378)二月書于宴晦菴’과, 간기 ‘留板忠州靑龍禪寺’의 기록을 통해 14세기 말 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에 충청도 충주의 천룡선사에서 간행된 목판으로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묘법연화경은 7권2책으로 발문에서 1405년 전북 고산 안심사(安心寺)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10행 19자 행격으로 보고됐다.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하나의 보살 몸에 세 개의 머리를 수직으로 올린 독특한 상으로 탑처럼 쌓아올린 3단의 머리는 티베트 계통의 종렬식 십일면 관음의 형식을 차용했다. 고려시대 후기 토속화된 혹은 지방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불교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등 불교사적, 공예적인 가치가 높다. 이들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쪽방촌에 ‘식사하세요’ 한 끼 나눔

소원정사 · 자비신행회 6월10일 진행

광주 계림동에는 여인숙 거리가 있다. 일명 ‘쪽방촌’이다. 좁은 골목 안 길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관 · 여인숙은 어림잡아 20여 개. 가장 저렴한 숙박비라 하지만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다.

소원정사(주지 도계)와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는 6월 10일 이곳을 찾아 ‘도계 스님의 식사하세요 · 한 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여관 · 여인숙 거리에 사는 주민들과 지역에 1인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계 스님은 “아직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 가슴 아프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자비신행회 관계자는 “쪽방촌은 광주에서 마지막 가는 곳으로, 월세 1~2평 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300여 명 정도 된다. 도계 스님이 마음을 내주셔서 지역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매주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도계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이화영 자비신행회 대표 등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끼 나눔을 진행했다.

특히 이곳은 보통 국가시설에서 주는 구호식품으로 연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면서 위기를 맞은 지역이다.

제공되는 음식도 정성이 가득하다. 소원정사 신도와 자비신행회 봉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매주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날은 도계 스님을 비롯한 김숙희 여사(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와 봉사자들은 오리탕을 주 메뉴로 하고 밥과 과일 등을 그릇에 담아 마스크와 함께 도시락 가방에 담아 주었다. 용기는 재활용으로 음식을 먹고 비워서 오면, 매주 새로운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는 현재 살아있는 전통이자 미래”



토픽 한국불교사
여문책 펴냄
김용태 지음/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성보인 경주 석굴암 본존불. 사진제공=문화재청

36개 테마로 풀어낸 1700년 전통 한국불교사
다양한 스펙트럼에 비친 한국적 심성과 가치관
한국 불교의 본래 면목을 만날 수 있는 교양서

한국 불교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 〈토픽 한국 불교사〉를 펴내게 되었다. 36개의 흥미로운 토픽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두루 살펴보는 이 책은 딱딱한 개설서나 통사가 아니다. 불교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 역사와 문화서 상당한 지분을 갖는 한국 불교 본래면목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교양서다.

한국의 명산 어디를 가든 만날 수 있는 고찰과 빛나는 불교 문화유산들은 17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말해주듯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원효 의상 의천 등 유명한 대사들과 임진왜란 때 맹활약을 펼친 사명당 같은 의승군의 존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석굴암, 팔만대장경,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깊은 애정을 갖게 마련이다. 요즘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배우기 위해 기꺼이 ‘템플스테이’를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나아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서양인들의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오랜 세월 부당한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결코 그 빛이 바래지 않은 자율과 평등, 이타주의, 비폭력과 생태주의, 조화와 상생 같은 불교적 가치관의 힘 때문일 것이다. 불교는 단순히 무(無)공(公) 업(業) 윤회 전생 인연 수행 해탈 열반 서방정토 극락 같은 단어들의 카테고리로만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크고 깊은 세계다. 또한 오래전 역사적 사실이나 심오한 교학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불교의 핵심에 닿기 어려울 것이다. 화두를 들고 참선에 드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만 일반인은 따라 하기도 쉽지 않은 수행법이다.

불교는 너무나 거대한 산이다. 종교 같기도 하고 철학 같기도 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기도 하지만 ‘돈오점수’ 대 ‘선교겸수’, 교종 대 선종 등의 골치 아픈 논쟁쯤은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렵다는 생각부터 든다. 다른 종교를 갖거나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굳이 불교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종교적 측면보다는 불교가 우리 역사와 한국인의 심성, 가치관에 끼친 영향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색다른 한국사이며 그만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한국인 심성 저변에 흐르는 불교적 가치관

“그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다음 생에는…” 등 굳이 드라마나 영화, 웹툰이 아니더라도 윤회나 전생과 관련된 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요즘에도 차고 넘친다. 각 개인이 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집단 무의식 한가운데에는 불교적 심성이 깊게 자리 잡았다. 반면 효와 충 등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의 상당수는 유교의 영향이 크다. 나아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관점에서 평소 착하게 살아야 하며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도덕관을 심어준 기독교는 서구 근대문명의 도입과 함께 우리 사회에 튼실하게 안착했다. 그뿐인가. 우리는 오랜 세월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 풍수지리, 도교적 가치관, 무속신앙에도 친숙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갖 종교적 심성이 어우러진 바탕 위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각자 나름의 가치관을 정립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종교적 심성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한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들 한다.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 강력한 국가 중심 시대를 거쳐 개인이 중심인 서구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한국 불교 역사는 얼추 1700여 년에 달한다. 이는 한국사 전체 기간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세월이다. 로마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기까지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 시달렸던 것처럼 신라에 전파된 불교 또한 국가 차원에서 공인을 받기까지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차돈의 순교’가 대표적이다. 이후 한국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거의 천년 동안 순항하면서 왕족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고려에 대한 인식인데, 고려시대에 불교가 매우 존숭되고 융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통치이념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도교와 풍수, 무속신앙 등이 탄탄한 사회적 저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현재 한국 불교의 원형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간화선의 선양과 임제법통 계승, 선교겸수 지향과 화엄교학 중시, 염불정토신앙의 대중적 확산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교 전통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와 오늘날의 불교를 잇는 매개이자 가교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과 세계관의 밑바탕에는 흔히 생각하듯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불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서 불교의 정당한 지분을 찾는 과정이며, 한국의 역사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는 데 많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중앙의 권세가, 하급관리와 아전, 각 지역의 토호 등 다양한 계층서 불교를 믿었다. 물론 국가의례와 양반 사대부 계층의 가례에서 불교식 제의와 내세관은 설자리를 잃었고, 유교의 제례와 사후 관념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어갔음은 분명하다. 조선 후기에 들어 유교사회가 본격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유교가 힘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세의 문제에서 불교가 가진 오랜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유교가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긴 어렵다. 조선 사람들 대다수는 업과 윤회로 상징되는 불교의 내세관을 잊지 않았고, 망자의 명복을 빌거나 정토로의 왕생을 꿈꾸는 이에게 불교는 내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었다. 성리학적 관념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유교식 제의가 일반 대중에까지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 불교의 도전과 미래

한국 불교는 고려 말과 조선 초, 조선 후기와 미군정기에 이어 1980년 10.27 법난까지 숱한 도전과 시련을 겪어왔다. 고려 말에는 사회적 분열과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백성의 살림이 날로 피폐해졌고, 불교계는 승려 수나 경제적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인적 수준이 하락하고 도덕적 타락이나 불감증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고려 말 불교계의 모습은 교학 연구나 선 수행의 풍토 대신 기복과 공덕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교단은 자정능력을 잃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다. 한편 유교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힘을 쏟던 조선 초에는 개창세력인 정도전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집중포화를 받아야 했다. 조선 후기에는 당시 유학자들조차 내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교의 별파로 인식한 천주교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나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가 효의 실천을 현세에서 내세로까지 연장하고 국왕의 장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천주교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1945년부터 3년간 미군정 통치기에 여러 특혜를 누리면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키운 기독교가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세력으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이승만 등 일부 정치가들은 미군정과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독교 편향 정책은 계속되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이 군사쿠데타를 마무리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서 조계종 총무원 측이 군사정권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사를 밝히자 흉흉하던 민심을 다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찍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매도당했다. 전통종교인 불교에 비해 천주교와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이나 미국 등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또 사회 지도층 인사와 유력자 중에 기독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거나 막무가내로 건드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불교는 신군부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거대 종교였고 비리 혐의를 씌우고 정화의 명분을 찾는 데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어난 것이 바로 10.27 법난이었다.

이처럼 한국 불교는 찬란하게 융성했던 시절과 고달픈 시련의 과정을 모두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밀레니엄 시대라 불리는 20세기 이후로는 과학의 눈부신 발달 덕에 새로운 ‘세계종교’가 탄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 전통종교들도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로 ‘과학’을 꼽기도 하고 현실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작금의 신이 바로 ‘돈’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진실이 과연 무엇이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장밋빛이라고 쉽게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짓는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불교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달려 있다. (중략) 불교는 1700년 동안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왔고 DNA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 있는 주류 종교로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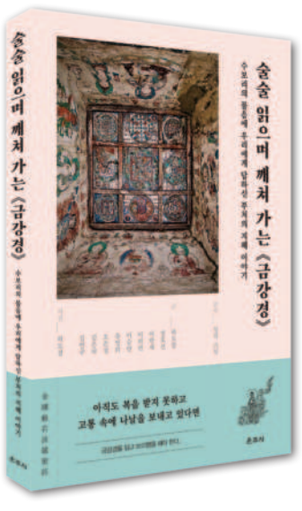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지난 2500년간 불교는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보편적 세계종교로서 아시아 각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인류 문명사에 크게 기여했다. 수많은 붓다의 계승자들은 종교적 경건함과 구도의 치열함으로 무장한 채 신앙과 수행, 교화에 생애를 바쳤다. 불교의 미래적 가치는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아올린 업과 인연에서 출발하며, 그 종교문화의 밝은 빛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한국 불교도 21세기 불교의 세계화와 인류 문명의 길 안내자 역할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할 때다.

▲저자 김용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학 인도철학불교학과서 수학하며 중국 송대 화엄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사상사학회·불교학연구회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2010), 〈Glocal History of Korean Buddhism〉(2014), 〈토픽한국사 12〉(2016), 〈韓國佛教史〉(2017, 일본 춘추사) 등이 있으며, 〈조계고승전〉(2020)을 함께 번역했다.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2007), 〈테마 한국불교(1~10)〉(2013~2021), 〈The State, Religion, and Thinkers in Korean Buddhism〉(2014), 〈East Asian Buddhism and Modern Buddhist Studies〉(2017) 등을 비롯해 스무 권이 넘는 불교학술서를 기획하고 함께 펴냈다.

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만든 금강경!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복잡한 해설 없이 경문을 읽어 가며
이해하고 깨우치는 특별한 책!

- 9명의 역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존과 수보리 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번역하였다.
-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하도겸 정호선 이한세 이외련 이승만 유영희 오은정 김은하 김연주 저
신국판 변형/무선/264쪽/값 16,000원

육조혜능의 본음에 가깝게 살아난 육조단경!

4본대조 돈황본 육조단경 정본역주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기 위해
정본화定本化한 세계 최초의 작업!



- 육조단경의 다양한 판본 중 가장 고층에 속하는 ‘돈황본’의 4종의 이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였다!
- 한문학, 불교학,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수불스님이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조영미 최연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정본역주/수불 감수
국판 변형/양장/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부처님이 하늘 위에…'드론불' 선보여

日정토종 류간지 아미타삼존상 드론불 공개

불교공예가와 협업 프로젝트 '아미타내영' 근간해 제작중 23불 부양시키는 것이 목표

박영빈 객원기자



드론을 타고 공중에 날아오른 아미타불상. 사진출처=미우라 요잔 트위터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타고 날아오르는 불상이 등장했다. 젊은 불교공예가들이 모여 시도한 불상의 현대적인 모습에 일본 SNS가 뜨겁다. 6월 9일, 일본 '야후재팬 뉴스', '마이나비 뉴스' 등의 언론들은 하늘을 나는 불상 '드론불'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의 유서 깊은 정토종 사찰 류간지(龍岸寺)는 최근 3구의 드론불을 공개했다. 구름모양의 장식을 단 3개의 소형드론 위에 각각 부착된 아미타삼존상은 큰 요동 없이 안정적으로 법당의 허공을 떠다녔다. 일본의 젊은 불교공예가들과 스님들이 모여 결성한 불교계 팝유닛 '부츠부츠부(佛佛部)'가 진행한 프로젝트 '드론불'이 완성된 것이다.

드론불 프로젝트를 지휘한 불상조각가 미우라 요잔씨는 "2018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드디어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미우라씨는 "불경에는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께서 임종하는 수행자를 맞이하러 온다는 '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이 있다. 이 주제를 표현하려 했다"며 드론불 모티프를 설명했다.

미우라씨는 "역대 많은 예술가가 공중에 뜬 불상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기술로는 실제 불상을 공중에 띄울 수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구름을 탄 모습의 불상을 법당 높은 곳에 걸어 두거나, 높은 단상 위에 봉안했다. '만약 옛날의 예술가가 '공중에 뜬 불상'을 현대에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는 질문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드론불은 2018년 처음 날아올랐다. 첫 시도에선 지금보다 더 큰 드론과 불상을 이용해서 아미타삼존을 띄웠다. 당시 SNS를 통해 공개된 모습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이에 고무된 부츠부츠부의 공예가들은 "최종적으론 아미타내영도에 나오는, 아미타불을 포함함 26구의 불상을 모두 하늘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드론의 가격과 크기, 불상의 중량 등이었다.

첫 시도에 이어서 드론도 발전을 거듭해 작은 소형 드론이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되면서 한 자리에 26구의 불상을 부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불상은 가벼운 나무로 조성하고 날개에는 구름모양의 장식을 더해 실제 구름을 타고 부처님이 오시는 듯한 분위기를 냈다. 미우라씨는 "현재 남은 23구의 불상을 한 분씩 조성 중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26개의 드론을 한 번에 떠올리는 것"이라며 드론과 프로그래밍에 밝은 참여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 4일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처음 영상이 공개된 트위터를 기준으로 6월 15일 기준 조회수는 63만회를 넘겼으며, 1만 4천회 이상의 게시물 공유가 이뤄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자마자 예경하지 않을 수 없다", "꼭 26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불상이라면 집에 모시고 싶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의 반응에는 감탄과 응원뿐만 아니라 불상이 날아오르는 초현실적인 모습이 SF영화의 한 장면 같다,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평가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美, 밀수된 캄보디아 불교유물 반환

다수의 불상 포함, 국제 도굴범들에 의해 반출돼



캄보디아로 반환된 27점의 문화재. 사진출처=CNN

지난 6월 11일 '로이터통신'과 'CNN'은 캄보디아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27점의 문화재가 미국에서 환수됐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 주정부는 불상과 보살상을 포함한 27점의 유물을 11일 공식적으로 캄보디아로 반환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캄보디아는 내전과 불안정한 정국 속에 문화재 밀매업자들의 탐욕으로 오랜 시간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번에 환수된 27점의 유물들은 모두 캄보디아에 중요한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다. 이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반환함으로써 현대와 고대의 믿음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되찾았다"며 반환의의를 전했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 역시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27점의 유물은 고대 크메르 선조들의 영혼이며, 전쟁 중 잃어버린 캄보디아의 정신이다. 캄보디아 국민과 세계에 양국 정부 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모든 인류, 특히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인 문화재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약 380만 달러(한화 약 4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 유물들은 고대 크메르 제국시대에 조성된 청동 불상들과 소조 불상을 비롯하여, 시바신과 나가(naga)조각상과 같은 힌두교 신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야불모(般若佛母)와 금강살타(金剛薩埵)와 같은 대승불교에서 보이는 불상들도 포함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27개 유물 중 24개가 미술품 밀수업자 '수바시 카푸어'와 뉴욕 장물아비인 '낸시 와이너'의 공모로 반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카푸어는 밀수 혐의로 공동 피고인 7명과 함께 2019년 뉴욕에서 기소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재판을 위해 카푸어의 미국 송환을 위한 서류를 인도에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카푸어와 공모자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1억 4천 3백만 달러 이상의 고미술품을 불법소유, 수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총 2500여 점의 유물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너는 3점의 유물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도난당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물을 구입, 밀수했다. 와이너는 이 유물들의 국적이나 원소장처를 세탁하여 뉴욕에 소재한 자신의 갤러리에서 판매해 왔다고 자백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얀마, 군용 비행기 추락으로 스님 사망

열악한 항공편과 악천후가 주원인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지역에 추락한 군 수송기의 잔해. 사진출처 = AP통신

6월 10일 태국 언론지 '방콕 포스트'는 미얀마 군 소속 비행기가 추락해, 스님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교통편이 열악한 미얀마는 군 소속 수송기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항공사업이 일부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고역시 군 수송기에 탑승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스님이 희생자에 포함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희생자인 스님 중 한 명은 장로로 존경받는 스님이었으며, 스님을 마중하러 나온 불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사고 직후 "만달레이 지역의 사찰 개원식에 참여하기 위해 스님 2명, 동행한 불자 6명, 군인 6명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도착지인 핀우린 공항 인근 제철 공장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악천후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탑승자 중 2명만이 생존해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생존자 2명은 군인이며, 그 중 한 명은 조종사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항공분야가 낙후되어 있고, 긴 우기로 비행에 적합한 날씨가 적은 미얀마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잦은 편이다.

2015년에는 악천후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 승객 1명과 지상에 있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2017년에는 안다만해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22명 전원이 사망한 미얀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미얀마 사회는 낙후된 항공기를 억지로 운용한 군부를 비판했으나 당시 군부는 공식적으로 악천후의 영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1300년 전의 불상, 박물관서 재회

오츠시립박물관 6월 9일 나라시대 불상 공개



새롭게 발견된 대세지보살상(좌)과 신코지에 봉안중인 관세음보살상(우). 사진출처=니혼 게이자이 신문

1300년 전 아미타삼존으로 조성된 불상들이 기적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9일 일본의 '교토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의 주요언론들은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두 불상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오츠시립박물관은 9일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라시대에 삼존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중 두 구의 협시보살상이 1300년 만에 다시 재회했다"고 발표했다.

박물관 측은 "오츠시에 소재한 신코지(眞光寺)가 소장중인 나라시대의 금동관세음보살입상과 쌍을 이루는 금동대세지보살상을 도쿄의 개인 소장가가 소장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세지보살상의 발견으로 두 불상이 아미타불로 추정되는 본존을 협시하던 불상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흩어졌던 한 쌍의 고대불상이 다시금 재회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로, 소장자의 동의하에 27일까지 두 불상은 박물관의 특별전시실에서 함께 공개된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테라지마 덴진 학예원은 "언제 헤어졌는지조차 불명인 두 불상이 1300여 년 만에 다시금 재회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롭게 발견된 대세지보살상은 높이 26.8cm, 상반신은 나신에 영락을 걸치고, 하반신에는 군(裙)을 두르고 있다. 보관에는 정병이 뚜렷하게 새겨져 대세지보살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박물관 측은 "도쿄의 개인소장가가 지난 3월 '신코지의 관음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 오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단청 속 꽃문양으로 펼친 불국토

노재학 사진전
'한국의 단청, 화엄'

경인미술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법당 내부 꽃 단청문양 집중 조명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반자 단청 등
법당 200곳 꽃단청 사진 57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의 단청문양.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의 단청문양.

전통건축의 단청문양들을 20년 동안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노재학 사진가가 문화유산회복재단 주최로 사진전을 연다.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의 단청, 화엄' 展에서 노 작가는 사찰 단청장엄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집대성했다. 노 작가는 지금까지 110곳의 전통사찰과 약 200곳에 이르는 법당의 단청장엄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이번 전시는 문화유산회복재단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차원으로 마련한 전시로 한국산사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1주년 기념 전시의 중심이 사찰벽화였다면 이전 전시는 한국의 전통사찰 법당 내부를 장엄하고 있는 꽃 단청문양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노 작가가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20년 동안 촬영한 법당 단청장엄 중에서 꽃 단청장엄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진 53점을 선보인다. 단청장엄의 확장과 연속, 비교의 개념으로 궁궐과 유가건축의 단청 사진 4점도 추가해 총 57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사찰의 꽃 단청장엄을 집대성한 유례없는 사진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수백 년 동안 높고 어두운 곳에 있어 쉽게 관상하기 힘들었던 단청장엄의 꽃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궁궐이나 사찰 등 성스러운 전통건축물에서의 '꾸밈'을 이야기할 때는 '장식한다'고 하지 않고 '장엄한다'고 한다. 시각적인 '꾸밈'에서 끝나지 않고 엄숙함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화엄(華嚴)은 그런 장엄의 세계 중에서 '꽃으로 엄숙히 장엄한 세계'를 말한다. 궁궐이나 사찰 등 한국의 전통건축 장엄에서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주형원리가 단청이다. 단청은 글자 그대로 '붉고 푸른 빛'으로, 청 · 적 · 황 · 흑 · 백의 오방색이 쓰인다. 동양철학의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오방색은 우주순환의 시간과 공간 방위, 만유 상생의 원리, 사람의 기질까지 연결한 심오한 철학적 특징이 담겨 있다.

단청은 색채 중심의 미술이지만 단청의 바탕엔 문양(文樣)이 있다. 문양은 무늬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다른 결의 개념이다. 무늬는 자연의 것이고, 문양은 무늬를 양식화한 인간의 것이다. 즉 문양은 자연의 무늬를 인간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인문예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청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문양과 오방색의 결합구조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단청의 중심은 색채가 아닌 문양인 것이다. 단청의 색은 문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색채는 문양의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깊이 감추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은 추상과 정신 관념을 담는 상징무늬이다. 법당과 같은 종교적 장엄일수록 문양의 정신 관념은 고도화된다.

한국의 전통사찰에서는 단청문양을 통해 불교교의를 펼치고 불국토를 구현한다. 문자언어로 집대성한 교의세계가 팔만대장경이라면 조형언어로 구현한 교의세계는 법당의 단청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청문양에서 꽃이 많이 보이는 것은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경전의 이름에 꽃을 넣어 불법(佛法)의 광대무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왔고, 온갖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 불국토를 연화장세계로 불러왔던 것처럼 '꽃'은 불교의 종교적 교의의 엄숙함과 숭고함을 담아온 조형적 상징체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연꽃, 모란, 국화 등의 현상계 꽃의 이미지로 그려낸 단청문양 속에 진리의 법과 불국토를 펼쳤던 것이다. 그 꽃은 더 이상 자연현상계의 꽃이 아닌 것이다. 자연의 물성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상징인 것이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노 작가는 전시 기간에 맞춰 〈한국의 단청, 1권 화엄의 꽃〉을 출간한다. 511쪽에 이르는 책은 이번 사진전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심층 해설서다.

사진가 노재학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사진과 건축, 불교철학, 미술사학 분야를 두루 독학했고 전통건축의 단청문양들을 근 20년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수학과 예술, 불교철학으로 익힌 안목과 사유체계로 단청문양에 담긴 형이상의 상징체계를 실증적으로 풀어냈다. 단청문양-사진-해석을 아우른 한국 단청문양의 집대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엔 〈한국산사의 단청문양 전국순회 사진전〉을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열었다. 저서로는 〈한국산사의 단청세계(미술문화,2019)〉 〈한국의 단청,1권 화엄의 꽃(미진사, 2021)〉이 있다. 전시문의 (02)733-4448

지친 대중 위로하는 佛音 피아노병창


국악인 최준.

CHOI-JUN PIANO DIARY 2021

AGAIN, START(이젠~ 다시, 시작)
서울남산국악당 6.30 오후 7:30
국악인 최준 15번째 개인 콘서트

국악 · 서양 경계 허문 월드음악
전곡 최준 작곡 음원 발매 예정
'저녁 종송' 등 부처님세상 그려

판소리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국악인 최준(31)이 15번째 개인 콘서트를 연다.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Again, Start(이젠 괜찮아질거야~ 다시, 시작)'는 코로나19로 지친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최준은 이번 공연에서 'Again, Start' 등 피아노와 노래,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국악기 피리와 장구, 가야금과 대금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의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월드음악 15곡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15곡의 음악은 모두 최준이 작곡했으며 공연 실황은 녹음하여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첫 곡 Again, Start(이젠 괜찮아질거야~ 다시, 시작)는 코로나19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Spring Rain, Summer Acacia, Lavender Flower 등 사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최준의 눈으로 바라본 부처님 세상을 표현한 Invocation(기도), 저녁 종송(夕鐘頌), one Mind(한마음), Anicca(무상), the way to Heaven(華嚴), Boundless(광대무변) 등이 피아노와 국악기의 합주로 연주된다. 여섯 번째 곡인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는 대행 스님의 게송을 읽고 작곡한 곡이다.

'피아노 병창'은 최준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형태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야금에 판소리가 더해지면 가야금 병창이 되는 것처럼 피아노에 판소리가 더해지면 피아노 병창이 되는 것이다. 최준은 피아노 연주에 판소리를 한다. 그것의 그의 장르다.

그렇게 국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최준은 발달장애2급 음악인이다. 하지만 절대음감의 소유자인 그는 일찍이 3시간짜리 판소리 흥보가를 외워서 완창하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악보 없이 연주할 정도로 음악가 최준은 장애인이 아니다. '발달장애'라는 힘겨움 속에서 그가 오롯이 음악가로 서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변의 응원이 있었다.

무엇보다 불교와의 만남이 큰 인연이었다. 어린 나이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는 진단 직후에 불교를 만났다.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좋아 염불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롭게 만난 것들이 음악으로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는 인터파크에 6월 15일 이후 오픈될 예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좌석만 오픈된다. (010-6411-1674)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K-속강’ 땅설법 보존 ‘청신호’

삼척 안정사 전승 땅설법
‘전통예술 복원사업’ 선정
동아시아 유일 俗講 평가
오는 10월 삼척서 세미나
다여 스님 1인 전승 구조
“무형문화재 지정 시급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땅설법 ‘성주대재 신중신 일대기’의 한 장면. 다여 스님에게 의해 1인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속강(俗講) 땅설법의 보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202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에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이 제안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 문화 복원 연구’를 선정했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은 현재 전승 위기를 맞은 전통예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또는 시연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사 땅설법 이외에도 동래 삼현육각 복원 연주, 서도명창 박월정의 판소리 춘향가 시연 등 8개 종목이 선정됐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에게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선정은 땅설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민속연희를 전공한 윤동환 전북대 교수,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형근 동아대 교수, 신희라 박사(전북대)가 각각 전통공연 측면에서 땅설법의 가치를 규명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삼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근 동아대 교수(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는 “안정사 땅설법은 종교의례를 넘어서서 전통예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무형유산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속강이다”며 “이 같은 소중한 무형 문화의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땅설법의 유일한 전승자인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지역 사찰에서 소박하게 봉행하던 땅설법이 이토록 중요한 무형문화인지 몰랐다. 지역 사람도 줄고 고령화되면서 전승이 어려워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이번 선정으로 보존에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땅설법이 불자와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法장사 고서들 서울시 문화재 지정

서울시 10일 지정 고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소장 〈불조삼경〉

서울 중랑구 법장사(주지 퇴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들이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잇달아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6월 10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를 통해 법장사 소장 고서 4점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1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황명이학명신언행록〉은 명나라 학자인 양렴의 저술로 16세기 조선에 유입된 책으로 16세기 조선 유학 도통(道統)의 정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함께 지정된 〈불조삼경〉은 원나라 고승 몽산덕이 선사가 〈불설42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을 합철한 것으로 몽산덕이는 이를 〈불조삼경〉이라고 불렀다. 이 책은 16세기 금산 신안사에서 간행된 법장사 소장본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또한 법장사 소장 〈배자예부운략〉과 〈장세호 유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경전과 관련된 21점의 판화가 수록돼 있으며 1534년 전남 광주 무등산 도솔암에서 목판으로 간행됐다. 해당 판본이 온전한 상태로 보전된 것은 법장사 소장본이 최초다. 신성민 기자

백제 불교문화, 새롭게 경험하세요

정림사지박물관, 실감형 ICT 체험 콘텐츠 구축

세계유산 정림사지에 자리한 정림사지박물관이 최첨단 기술이 활용된 체험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정림사지박물관에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재개관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개관한 정림사지박물관은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던 역할에서 진일보해 문화유산 활용 트랜드를 지향하는 첨단 박물관으로 변모하게 됐다.

부여 정림사지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오층석탑과 함께 백제 사비시대 불교문화의 핵심유적으로서 동아시아 불교문화와 건축기술의 중국, 백제, 일본 등 국가 간 교류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성된 정림사지박물관은 제1전시실은 유물전시 공간에서 조명 쇼를 연출하며 AR을 통한 유물의 자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피니티 룸과 AR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정림사 복원모형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석탑모형에 정림사지오층석탑의 축조과정과 비례미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제2전시실은 백제 사비시대 6대왕의 대화를 보여주는 ‘불교의 나라 백제’와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백제불교의 유래와 전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360도 화면에서 백제문화의 터전 부여 10경과 영원을 꿈꾸는 백제의 이야기를 상영할 ‘사비연화 360’ 영상관은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인 영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정림사지박물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공간을 구성했다”며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시기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정림사지박물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ICT 체험 콘텐츠.

‘唐 강거사 비문’ 최초 공개된다

국립중앙博 ‘투루판 한문자료’ 특별전서

唐 귀순한 후 대장경 필사
해당 경전 목록 비문 새겨

투루판 중심지인 고창고성(高昌故城)에서 발견된 대장경 목록 비문과 시신깔개가 부착된 당나라 관문서들이 국내 박물관서 최초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6월 14일부터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에서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실크로드 경계의 삶’을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대장경 목록 비문 등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발간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고문자- 투루판(吐魯番) 지역의 한문자료〉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 성과를 대중에게 특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6건 19점의 전시품은 1912년에 일본 오타니(大谷) 탐험대원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 1885~1978)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북동부의 투루판 지역에서 수집한 것으로, 투루판의 국씨고창국(麴氏高昌國) 시기인 6세기 말부터 당(唐) 왕조 지배기인 7세기 말에 작성됐다.

불교 관련 유물로는 고창고성에서 발견된 ‘강거사의 대장경 조성 업적을 새긴 비편(武周 康居士 寫經 功德記 殘碑)’이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비문에 따르면 강거사는 강국(康國, 현 사마르칸트) 출신의 소그드인(粟特人) 지도자였으나, 7세기 중반에 당나라로 귀순해 투루판에 터전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말년에 공덕을 쌓기 위해 대장경을 필사하는 사업을 벌이고 해당 경전 목록을 새긴 이 비를 세웠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는 ‘강거사의 대장경 조성 업적을 새긴 비석’

이번 조사에서 비에 새겨진 경전 목록 대부분이 동시기에 유통된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제8권에 수록된 장안(長安) 서명사(西明寺)의 대장경 목록과 완벽히 일치하며, 나머지는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에서 선별한 최신 번역 경전임을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두 목록에 근거해 복원한 비의 앞뒷면에는 당시의 818부 4039권 이상의 경전명이 새겨져 있었고, 비의 몸돌 높이가 최대 2.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였음이 밝혀졌다”면서 “이 비는 6~7세기 투루판 지역의 비석 가운데 실물로 현존하는 유일한 예로, 이 비가 가리키는 강거사 대장경의 실제 경전들을 향후 투루판 지역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전은 국내외 관련 연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실크로드 경계에서 한인(漢人)과 서역인이 공존했던 삶의 흔적을 살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3

▶ 24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바라나시를 거쳐 꼬삼비에 도착한다. 꼬삼비는 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빈두사라가 파견한 대신이 다스리고 있는 옛 왐사국이었다. 아쇼까는 꼬삼비성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평생의 스승이 될 우빠굽따를 만난다.



아쇼까, 너의 운명은 칼이다

대신들이 이발하는 날이었다. 칼라따까 대신은 이발하러 궁중이발소로 갔다. 칼라따까가 궁중정원을 지나 궁중이발소가 있는 회랑으로 막 올라설 때였다. 아쇼까의 말먹이꾼이 달려왔다. 아쇼까가 탁실라에 가 있을 때만 해도 칼라따까에게 배속된 군관 출신의 늙은 말먹이꾼이었다.

"왕자님은 잘 계시느냐?"

"왕자님께서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과 아들은 물론 저까지 함께 떠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된 일이구나."

"저같이 늙은 말먹이꾼이 왕자님을 따라다니기에는 오히려 짐이 될 것입니다."

칼라따까는 아쇼까의 심란한 마음을 이해했다. 빠딸리뿌뜨라성의 브라흐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었다. 늙은 말먹이꾼이 다시 말했다.

"다만, 왕자님께서는 떠나고 싶어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르마 왕비님께서 왕손을 잉태하고 계시어 차마 떠난다는 말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지. 왕자님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왕비님이 꾸날라를 보살펴 주셨으니 이번에는 아상디밋따 부인께서 수발을 들어주어야 도리이지."

칼라따까는 말먹이꾼을 보낸 뒤 궁중이발소로 들어갔다. 마침 대신들이 이발하는 날이었으므로 칼라따까는 바로 이발의자에 앉았다. 칼라따까는 머리숱이 적은 편이었다. 나이 들자 머리카락이 차츰 빠지면서 이제는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였다. 칼라따까는 가위를 쥔 수드라에게 가능한 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면도만 하도록 지시했다.

그때 내성 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는 코끼리와 말들이 날카로운 괴성을 질러댔다. 빈두사라왕이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 군사들을 훈련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의 군대는 4군으로 편성돼 있었다. 코끼리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 등이 그것이었다. 이발을 마친 칼라따까는 다르마 왕비에게 반승낙을 받았으므로 빈두사라가 집무를 보는 궁으로 갔다.

칼라따까의 훤칠한 모습에 궁녀들이 수군거렸다. 콧수염만 놔둔 채 구레나룻수염을 밀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칼라따까를 본 빈두사라가 웃었다.

"제관의 동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속겠소. 하하하."

"구레나룻수염만 없앴는데 그렇게 보이옵니까? 기분이 좋아서 밀어버렸사옵니다."

"기분 좋다니 무슨 일이오?"

"대왕님께서 저에게 지시한 일이옵니다."

"말해 보시오."

"다르마 왕비님께서 반승낙했사옵니다."

"아쇼까를 웃자인으로 보낼 수 있겠소?"

"왕자님을 설득해 본다고 하셨으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라따까를 바라보았다. 제관을 오랫동안 맡아온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신이었다. 빈두사라에게는 이와 입술 같은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아쇼까가 왕비의 말을 들을 것 같소?"

"대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왕자님은 선뜻 웃자인으로 가겠다고 할 것이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오?"

칼라따까는 늙은 말먹이꾼에게 들은 대로 보고했다.

"왕자님은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하옵니다.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떠나고 싶어 하옵니다."

"사실이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말먹이꾼이 지금은 왕자님 말먹이꾼으로 가 있는데, 그 늙은 말먹이꾼이 제게 한 말이옵니다."

"그렇다면 아쇼까가 왜 내게 직접 찾아와 말하지 않는 것이오? 나는 한시가 급해서 언제라도 출병할 수 있게끔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소.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아쇼까만 보지 못했단 말이오? 나는 반란이 일어난 웃자인만 생각하면 집무실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소."

"아마도 왕비님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지 못했던 것 같사옵니다."

"왕비가 반승낙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왕비 때문에 그런단 말이오."

"왕비님께서 왕손을 잉태하셨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왕비님께서는 꾸날라를 키우셨지요. 그런데 그런 왕비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찌 쉽게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그야 아상디밋따가 왕비 산후조리를 하면 될 것이오. 다행히 꾸날라는 아상디밋따를 아주 잘 따르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다르마 왕비님께서는 아쇼까 왕자님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난다고 해도 이해하실 것만은 분명하옵니다."

빈두사라는 잠시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탁탁 때렸다. 그러면서 칼라따까가 한 말을 정리해 보았다. 아쇼까는 가족과 함께 빠딸리뿌뜨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머니 다르마 왕비가 동생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다. 첫 부인이 낳은 갓난아기 꾸날라를 키워주었는데, 자신이 가족과 함께 떠난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마는 아쇼까가 떠나는 것을 반승낙한 상태이다. 왜 그럴까? 빈두사라는 눈을 뜨면서 칼라따까에게 물었다.

"제관이여, 다르마 왕비는 위험한 반란지역으로 아들이 떠나는데도 어찌하여 반승낙했다는 것이오?"

"라따나 왕자님 독살 미수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사옵니다. 대왕님께서 총애하는 왕자님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벌써 두 번째 아니옵니까?"

"빠딸리뿌뜨라성 안보다 성 밖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군."

"실제로 그렇사옵니다."

빈두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총애한 왕자는 수시마와 라따나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아쇼까를 좋아했던 적은 없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모든 면에서 능력은 출중하지만 고집이 세고 잔인했다.

그래도 빈두사라를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 있었다. 비록 이복형제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시마와 아쇼까는 우애가 좋았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가 집무실을 나간 뒤 우두머리전령을 불러 지시했다.

"아쇼까를 입궐시키라."

"예, 대왕님."

그러나 빈두사라는 웃자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져 아쇼까를 집무실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신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집무실에 앉아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다.

"아쇼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빈두사라는 우두머리전령을 내보냈다. 우두머리전령은 즉시 친위대 군사를 풀어 아쇼까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명했다. 날씨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가는 때였으므로 쾌청했다. 강가강 강물은 우기를 거치는 동안 불어난 수량으로 파도치듯 부드럽게 넘실댔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들판에는 곡식들이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사탕수수밭과 목화밭, 유채밭에는 수시로 먹이를 찾는 새떼들이 출몰했다.

친위대 군사들은 아쇼까의 소재를 금세 알아냈다. 우두머리전령이 빈두사라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은 다르마 왕비님 별궁 후원에 계시옵니다."

"알았다. 바로 갈 것이니라."

우두머리전령의 보고대로 아쇼까는 별궁 후원에서 아내 아상디밋따와 함께 꾸날라의 재롱을 보면서 오후 한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살이 된 꾸날라는 혼자서 호르륵 호르륵 웅얼거렸는데, 마치 강가강에 사는 아름다운 물총새 소리 같았다. 우두머리전령이 먼저 달려가 빈두사라가 오고 있음을 아쇼까에게 알렸다. 아쇼까는 빈두사라를 맞이하기 위해 후원 초입까지 잰걸음으로 나갔고, 아상디밋따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르게 했다. 그런 뒤 꾸날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었다.

아쇼까가 빈두사라를 후원으로 안내했다. 아쇼까 별궁은 예전에 군관들이 사용하던 숙소로서 초라했지만 후원은 그런대로 넓었다. 빈두사라는 꾸날라를 한번 껴안더니 아쇼까에게 말했다.

"아쇼까야, 나는 너를 기다릴 만큼 지금 여유가 없다."

아쇼까가 눈치를 하자, 아상디밋따는 꾸날라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주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웃자인에 반란이 일어났다."

"파견한 신하들 목숨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옵니다."

"다른 소국까지 동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아쇼까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하는 일이라면 떠나겠사옵니다. 다만."

"네 어머니 때문이냐?"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옵니다. 동생이 태어날 것이기에 그렇사옵니다."

"하하하."

빈두사라가 크게 웃었다.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다.

"네 어머니는 너를 이해한다고 했다. 네 어머니를 위한다면 아상디밋따가 빠딸리뿌뜨라에 남아서 돌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족과 함께 떠나려고만 했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사옵니다. 아상디밋따는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이옵니다."

"아쇼까야, 너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너는 용감한 내 아들이 분명해."

빈두사라는 아쇼까의 의중을 확인하고는 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쇼까는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았다. 빈두사라에게 웃자인으로 떠난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허탈해져 견딜 수 없었다. 서북쪽 변방의 탁실라로 떠났듯이 이번에는 남쪽 변방의 웃자인으로 가야 할 운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에 엉거주춤 앉은 채로 상념에 잠겼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서쪽 하늘에 화톳불 같은 놀이 붉게 타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이 문득 보였다. 아쇼까는 가죽칼집에 든 칼을 빼어 허공에 금을 긋듯 휘둘렀다. 그러자 허공에서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아쇼까야, 너의 운명은 칼이다!' 라는 소리가 무겁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런 외침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밝게 스치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쇼까는 혼잣말로 소리쳤다.

"그래, 반란이 일어난 웃자인으로 떠나자!"

그제야 아상디밋따가 아쇼까의 기묘한 행동을 보고 있다가 다가왔다. 아상디밋따는 이미 각오한 듯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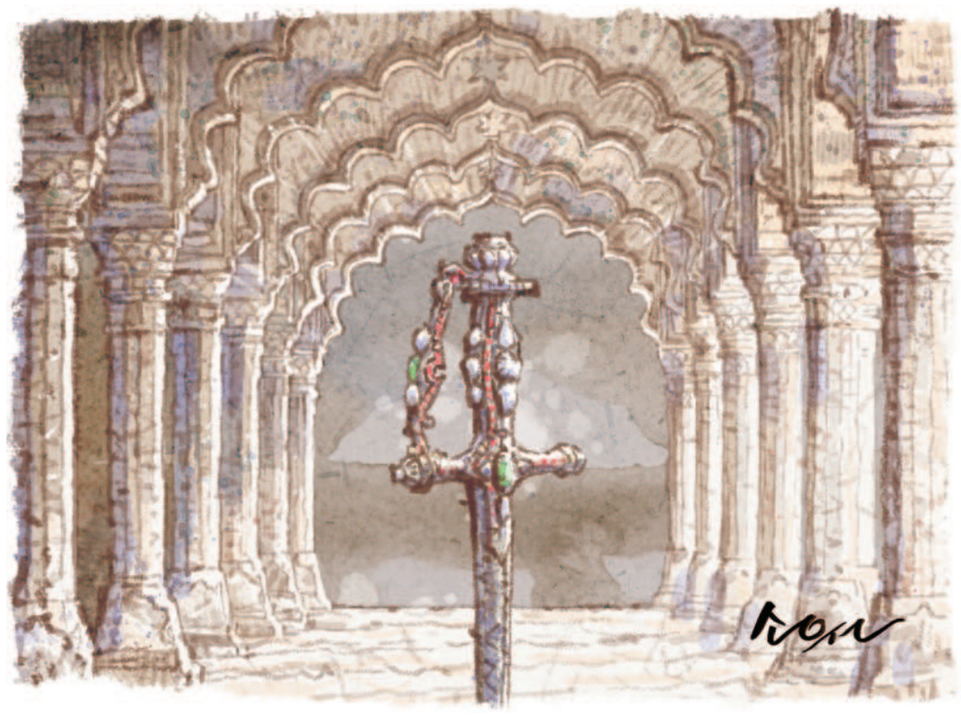
"걱정하지 마세요. 꾸날라를 잘 키우고 있을 게요."

"저는 결혼할 때 인드라신께 맹세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의 발걸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이라고요."

"고맙소, 아상디밋따.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천녀와 같소."

"어머님 산후 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왜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새 저녁놀이 스러지고 땅거미가 졌다. 아쇼까는 자신도 모르게 아상디밋따를 껴안았다. 한동안 아쇼까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상디밋따도 소리 내어 흐느꼈다. 그러나 아쇼까는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압군을 거느리고 웃자인으로 떠날 것이라며 이를 악물었다. 〈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⑫ 한국선법의 정착



▶ 한줄 요약
지눌은 한국적인 선법의 정착을 통하여 토착화를 구축해준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눌, 한국적 선법 정착·토착화 이뤄

1. 지눌의 위상

보조 지눌(普照 知訥, 1158~1210)은 고려 중기에 출현한 인물로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의 선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소위 한국선의 토착화 및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째는 새로운 선수행법을 도입하였다. 둘째는 본격적으로 선록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셋째는 선과 교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넷째는 분명하게 전등의 법맥을 계승시켰다. 다섯째는 청정한 승풍의 기율을 진작시켰다.

한국선이 수입되던 8세기 말부터 지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12세기 후반까지 400여 년 동안의 역사는 한국선법의 시기로 보자면 수입을 통한 태동의 시기와 그로부터 이후에 한국에 선법을 정착하기 위한 모색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것은 주지하듯이 구산문을 비롯한 여러 산문의 개창과 소멸 그리고 당말 및 오대에 형성된 선종오가의 수입과 그 전개 등으로 대표된다. 이 시기에는 선사상사적인 측면으로 보아 독창적인 사상의 정립을 보여주기보다는 선리(禪理)의 전승과 소개 내지 보급 그리고 법맥의 계승과 정착에 따라 선종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시도했던 점이 엿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산문의 개창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오기도 했지만, 개창자의 사상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정립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모습으로 보였다. 특히 선종오가가 모두 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특색을 보여주었던 것으로는 순지의 원상법과 화엄교학의 응용을 들 수가 있지만, 그것도 이미 중국의 선종사 곧 위앙종(潙仰宗)에서 연원하여 전개되었던 것을 보급하여 전개시킨 측면이 강했다. 조동종풍(曹洞宗風)의 전승과 전개의 경우에도 선리의 측면에서 보면 충실하게 전승했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였다.

2. 한국적인 선법의 토착화를 구축하다

이러한 시기에 출현한 지눌은 그동안 움츠렸던 팔다리를 펼치기라도 하듯이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북송 말기 및 남송 초기에 걸쳐 확립되었던 송대 간화선(看話禪)의 수행법을 도입하고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저술도 남겼다. 특히 대혜 종고(大慧 宗杲, 1089~1163)의 간화선의 수행법에 대하여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자화두(無字話頭)의 십종병(十種病)을 정립하였다. 그것은 대혜의 무자화두 참구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10가지 항목을 내세워 구체적으로 확립한 것은 지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에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게 전승되어 더욱더 강조되고 세련되게 전개되었지만, 지눌이 보여준 새로운 선수행법에 대한 안목은 이후로 한국의 선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행문화의 서막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눌 자신은 정작 간경(看經)을 통한 수행법으로 오도하였으면서도 후학들에게 지도한 수행법은 간화선의 수행법을 비롯하여 기타 염불(念佛)과 참회(懺悔)와 주력(呪力) 등에 걸쳐 다양한 수행법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조선시대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수행풍토는 지눌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한국선에서 수행의 성격을 보편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초석을 놓는데 큰 역할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눌은 한국의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선문헌을 본격적으로 저술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지눌 이전의 수많은 선자(禪者)들의 역할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어록 내지 저술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지눌이 남겨 놓은 여러 가지 저술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눌 이전에 활동한 선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몇몇 비문(碑文)과 중국의 찬술문헌 등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눌의 저술이 다방면에 걸쳐 출현함으로써 선법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교학의 사상과 계율과 불교문화의 측면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한걸음 진척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10여 종이 넘는 지눌의 저술에는 법어(法語)와 가송(歌頌) 등을 비롯한 납자들의 마음자세에 대한 선종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과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등 승가의 기율을 다잡으려는 계율과 관련된 것,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비롯한 화엄의 교학과 관련된 것,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등 중국에서 찬술된 저술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지닌 것,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보이는 간화선의 수행법을 위한 것, 〈염불요문(念佛要門)〉에 보이는 염불과 관련한 것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지눌이 내놓은 이들 저술들은 이후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법의 방향 내지 선과 교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셋째, 지눌 자신은 선자였으면서도 교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찍이 중국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적인 면모를 계승하였다. 조사선의 원류로 간주되고 있는 보리 달마(菩提 達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달마는 일체중생이 부처와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경전의 가르침을 의거하여 확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것이 곧 자교오종(藉敎悟宗)으로서 경전에 의지하여 선의 종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존속되어 오고 있다. 바로 지눌이 이와 같은 조사선풍의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증좌로는 다양한 교학에 대한 지눌 자신의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남겨



보조 지눌 진영.

한국선의 토착화 · 전개에 중요역할
본격적으로 선록에 대한 저술 남겨
선교 융합 분명한 전등 법맥 계승해
청정한 승풍의 기율 진작 위해 노력

둔 저술의 종류와 성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눌은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영향을 강하게 수용하였다. 가령 종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과 교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융합 내지 선교겸수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점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가장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은 교학을 바탕으로 한 선리일 뿐만 아니라 지눌에게 있어서 선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근거로 기능할 수가 있었다. 지눌이 보여준 선과 교학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신라 말기에 선법의 수입시기에 보여주었던 것으로 무모한 주장이기도 했던 선법우월주의에 대한 태도를 극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하여 균형이 잡힌 이해와 실천의 방향을 일러준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눌의 입장도 선법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수선사(修禪社) 계통뿐만 아니라 후대의 선법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까닭에 한국선법만의 특징으로 굳어진 면모이기도 하다. 한국선법의 이러한 전통은 이후로 고려를 통하여 조선시대 나아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넷째는 기존 사굴산문(闍崛山門)의 법맥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눌의 경우에도 이전의 사승(嗣承)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눌로부터 전개된 이후의 법맥의 전승은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가령 조선 후기에 출현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 및 〈동사열전(東史列傳)〉 등을 비롯한 전등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헌은 물론이고, 이후 20세기 초에 출현한 〈조계고승전(曹溪高僧傳)〉에 이르기까지 지눌의 사승관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눌 이전의 한국선법에서는 일찍이 단절되어 구체적인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법맥에 대한 강한 긍지심과 문중의 종풍을 수호하려는 의식은 지눌로부터 분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려 후기에는 전등사서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나타났다. 가령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그러하고, 조선 초기에 보이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통록촬요(通錄撮要)〉의 개판 등은 지눌의 법맥의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전등의식의 발로로부터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의 열악한 불교계의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기라도 하듯이 중국의 선종사에 비하여 대단히 단조로운 법맥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노정시켜준 것이었다. 가령 임제종 계통의 법맥 위주로 전개되어 온 점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와중에도 사승관계에 대한 정통과 방계에 대한 논쟁이 청허 휴정 이후로 다시 불거지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한국의 선종사를 점철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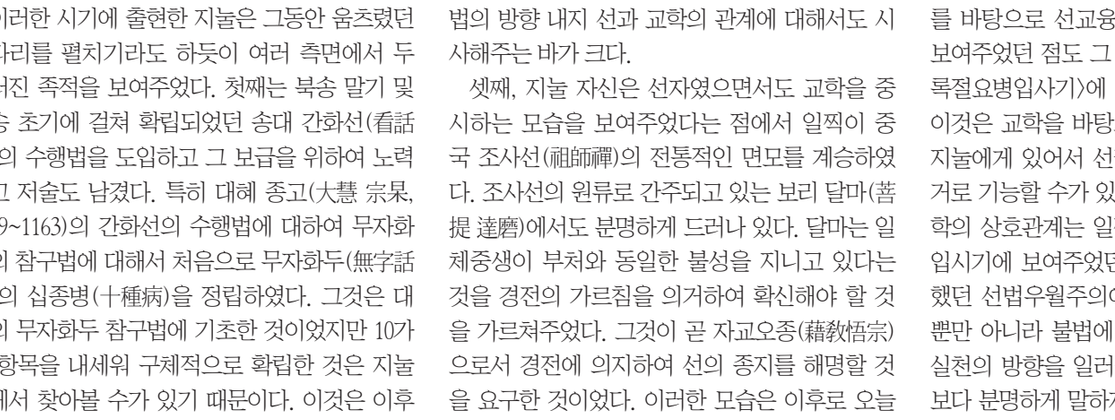
다섯째, 지눌은 국가적인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시대자각이 투철한 선자였다. 무인정권으로 흘러가는 시기였던 까닭이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승풍이 타락해가던 모습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었던 지눌은 새로운 결사운동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불교의 1000여 년에 걸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승풍의 진작을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권수정혜결사문〉은 그 일환으로 출현한 것이었다. 지눌은 상구보리(上求菩提)의 기치도 중요했지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활동과 더불어 승가 자체가 청정한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였다. 이런 점은 지눌이 선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즉시대적인 자각을 앞세움으로써 선종계 나아가서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신앙을 비롯한 수행의 결사운동은 보다 넓은 측면에서 전개되는 단초의 촉발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시대를 계도하고 사회를 정화해야 할 출가자의 본분사에 대한 자각이었고, 그 동안 세속화되어가던 승풍을 회복시키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이기도 하였다.

3. 의의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한국선의 역사에서 한국적인 선법의 전개를 위한 인물로서 지눌이 보여준 커다란 활동은 중세 한국 선법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볼 수가 없었던 시도였고 전개였으며 결과로서 한국적인 선법의 큰 흐름을 주도하였다. 중국의 선종사에서 조계 혜능의 역할은 소위 중국적인 선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국선의 토착화를 성취한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선의 역사에서 400여 년에 걸친 모색시기를 보내고 새로운 한국선법의 전개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준 인물로 지눌의 역할을 언급할 수가 있다. 그것은 지눌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한국선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선의 자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중국으로 유학하여 자발적인 선법을 도입해온 경우가 그러하고, 선종의 수행법에 다양한 신앙의 수행법을 융합하여 발전시킨 경우가 그러하며, 법맥의 전승에 따른 강한 문중의식의 형성 등이 그러하고, 본격적인 어록의 편찬이 출현했던 것과 기타가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지눌은 한국적인 선법의 정착을 통하여 토착화를 구축해준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⑫ 아미타독존 내영도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쇼호지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독존내영도〉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극락왕생을 위해 나투신 아미타불을 표현하고 있다.

그 빛 한량없이 시방세계 비추니…

"내 손을 잡아라"라는 듯, 아미타부처님이 왼손을 내밀고 계시다. 왼팔의 길이는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네 뜻대로"라는 의미의 여원인(如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할 것이다!"

오른팔은 가슴 정도 높이로 접어 올려 손바닥을 보이는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극락세계가 여기 있다"라며 그 세계를 설법하신다. 죽음의 순간, 꿈에도 그리던 아미타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셨다! 그리고 극락의 풍경을 온몸으로 보여주신다. 원만한 상호, 푸른 나발, 오묘한 빛 광배, 금빛 물결의 법의(法衣), 찬란한 푸른 연꽃. 내 앞에 나투신 부처님 모습에 넋을 잃는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쇼호지(正法寺)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

그림②. 아미타부처님의 상호 부분.

日 쇼호지 소장 '아미타내영도'
마지막 순간 아미타 영접 표현
내 앞에 나툰 부처님 모습 감동

임종 순간 나타난 아미타불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인연이 다하여 이제 몸도 흩어지고 거기에 붙어있던 마음도 흩어지는 순간이다. 죽음의 순간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지수화풍이 흩어진다"라고 표현한다. 성성하게 결속하여 활발하게 서로 작용하던 요소들이, 이제 그 인연이 다하여 헐거워지고 삐걱대다가 결국 제각기 뿔뿔이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누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변화무쌍한 흐름을 '무상(無常)'이라고 한다.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의 진리를 모든 존재는 하릴없이 체험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내 몸'이라 철썩 같이 믿었던 이 몸뚱아리가 무너지며 해체되는 순간,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아미타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 하는 극락왕생의 해법을 제시한다. 죽음의 공포를 단칼에 불식시키며 찬란히 등장한 부처님. 당장에라도 극락으로 안내하는 그 손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 같은 '내영도(來迎圖)' 형식의 아미타 불화는 지극히 혼란스러웠던 고려후기, 절찬리에 제작되었다. 당시에 너도 나도 원했던 아미타불 내영도. 내영도의 '내영'이란 '맞이하러 오다'라는 뜻으로, 중생의 영가를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 아미타불이 직접 몸을 나투신 모습을 의미한다.

'내영도 형식'의 아미타불 관련 불화는 현존하는 160여 점의 고려불화 중, 무려 47점이나 된다. 미공개 고려불화가 해외 곳곳에 잔여하고 있는 수치까지 감안한다면, 고려불화 전체의 약 40%까지 육박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거의 비슷한 비율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수월관음이겠다. 그래서 고려불화는 수월관음과 아미타불 관련 불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관련 47점의 작품 중에 26점이 '내영도(來迎圖)' 형식이라는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작품이 내영도 형식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염불을

우리나라 사찰 어느 법당에 가든 만날 수 있는 대중적 경전이 〈아미타경〉이겠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임종 시에 아미타부처님을 뵙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간결하게 쓰여 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즉, 일주일 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놓지 않고 지속하여 계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집중을 7일간 계속하면 아미타불을 어김없이 만난다는 왕생법의 요지이다.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사마타(선정, 禪定) 수행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행하면 하얀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 '아미타3부경(〈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에 공통으로 언급되는 '유리의 땅'이 펼쳐진다. 집중도가 강할수록 이 희한한 빛의 강도와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세어진다. 처음에는 내가 빛을 대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 빛이 나를 대상으로 하여 나를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만다. 주객이 바뀌어, 빛이 주체가 된다.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이 같은 빛을 만날 수 있지만, 임종 시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임종 시에 하얀 빛이 나타는 경우는 평균 100명에 30명 꼴로 집계된다"고 죽음학 연구학자 최준식 교수는 말하고 있다. 나머지 60%의 영가는 어두운 중음(中陰,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의 터널 속에 바로 갇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업(業)대로 다시 윤회가 시작된다.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無明)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들이고/ 사대육신 흩어지고 업식(業識)만을 가져가니/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무명업장(無明業障)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中)

하지만 임종 시에 빛에 노출된 30%의 영가도 모두가 극락행의 행운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기에 위의 인용한 〈아미타경〉의 왕생법 문구에도, 첫 머리에 "만약 착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평생동안 악업보다 선업을 더 많이 지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말이겠다. 인과법이 여지없이 적용된다. 자신이 지은 수행 선업의 용량에 따라, 조금 수행한 사람에게 이 빛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업력이 소용돌이쳐서 말려들게 된다. 많이 수행한 사람에게 빛의 지속은 그 선업의 양만큼 오래가겠다. 물론 상품(上品) 또는 상근기(上根機)의 수행자는 죽는 순간 바로 지체없이 극락세계에 노출되고 무생법인을 깨달아 그 세계에 계속 머문다고 한다. 사마타 수행 끝에 노출되는 이 찬란한 빛을 나옹선사는 '자금광(紫金光)'이라고 표현한다.

"阿彌陀佛在何方(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착득심두절막망) 念到念窮無念處(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육문상방자금광)"

이는 나옹선사의 유명한 게송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핵심 요지를 담은 내용이다. '아마타불 어디 계신가'로 시작하여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곳에서 나오는 어지러운 번뇌는 제압되고, 찬란한 자금광이 방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 '자금광이 바로 아미타불이다'라는 것이다.

몸체에 표현한 황홀한 극락세계

"사리불아, 왜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아미타부처님이라 부르는지 아는가?"라고 〈아미타경〉에는 그 이유가 설파되어 있다. "그 부처님의 빛(또는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모두 비추고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 한다. 곧 아미타부처님이니라. 또 그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이 끝이 없는 아승지겁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 한다. 곧 아미타부처님이니라."

'아미타'는 산스크리트(고대 인도어) 'Amitâbha(아미타바)'와 'Amitâyus(아미타유스)'의 합성어인데, 아미타바는 '무량광(무량한 빛)'을 의미하고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무량한 수명)'를 의미한다. 즉, '영원한 빛이 영원히 계속'되는 선업의 과보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공덕으로 장엄된 극락세상이 펼쳐진다. 이러한 공덕 장엄의 모습을 〈아미타독존 내영도〉에서는 아미타불의 몸체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약 8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금빛 반짝이는 문양과 홍색과 녹색의 영롱한 바탕색은 그대로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매우 고요한 적멸(寂滅)의 바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찬란하고도 화려한 마이크로의 세계가 펼쳐진다. 붉은 납의(衲衣, 가사 또는 대의)에는 둥근 원 문양이 가득한데, 물 흐르듯 유려한 옷 주름을 따라, 수십 개의 보름달이 넘실대는 듯하다. 개개의 동심원 안에는 무수한 우주의 장엄이 펼쳐진다. 장엄 연기의 파노라마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묵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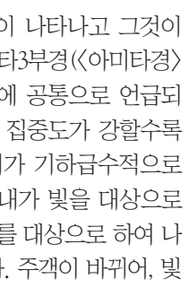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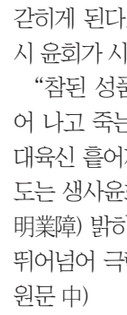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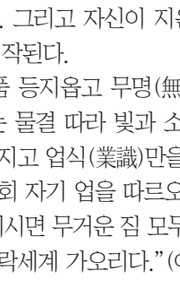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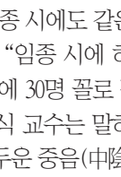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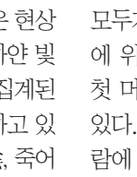
육각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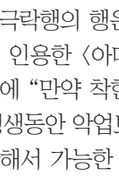
연꽃칠성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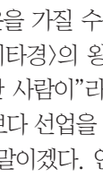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박원자의 母情佛心 ⑫ 경국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출가 5년차인 경국 스님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남편, 자녀 2명을 모두 출가시켰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로 살아가라"고 기원한다.

"수행자다운 수행자가 되세요"



그림 · 박구원

출가 5년차인 경국 스님을 BTN불교TV 화면에서 처음 보았다. 밝고 경쾌했다. 그러면서도 수행자의 위의가 서려있었다. 맞아, 어쩌면 출가란 저렇게 경쾌한 길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님을 어느 찻집에서 만났다. 생각보다 더 유쾌하고 늠름했다.

"처음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몇 년 뒤 출가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출가를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생각했더라고요. 출가가 뭐 별건가 어디에 있던 부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래서 삶이 무겁다. 한 생각 돌이켜 내려놓으면 되는데, 생각을 들고 있느라 힘들다. 젊은 경국 스님은 이미 그걸 알아챘고, 그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문에 들어선 것이리라.

함께 모시고 나온 어머니를 뵈니 경국 스님의 경쾌한 출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 분명해보였다. 몇 시간 함께 있는 동안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엄마로서도, 재가수행자로서도 새롭게 발심이 된 시간이었다.

경국 스님의 어머니 고성희 여사는 시어머니, 남편, 자식 둘 모두가 출가하는 특별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일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만났다가 다시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0살 즈음에 대학생이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한 살 더 많은 이 남자는 만나면 부처님 이야기뿐이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은 것 같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사람다운 일을 하고 가신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사랑으로 충만한 따뜻한 분으로 누구든 보듬어 주고 안아주었으며, 자신을 내세움 없이 가장 아래에 서서 중생에게 맞추어 주고 순종하신 분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부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매번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차츰 내면 저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처님처럼 멋있는 인간이 되어보자.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는 마흔 살이 되면 출가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7, 8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출가하기 전에 남은 식구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연탄장사, 책장사, 슈퍼마켓, 중국집 등을 열어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일곱 살 때 출가를 단행했다. 출가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부처님처럼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떠나보냈다.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부처님처럼 최고로 잘 살다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큰 아들인 경국 스님이 일곱 살 때였다.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았다. 육신이 건강하니 무엇이든 해서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 생각했다. 언제나 사는 것을 걱정해보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부처님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돈을 많이 지니고 싶은 생각도, 잘 먹고 싶은 욕망도 없었다. 세상에 라이벌이 있다면 부처님 한분이었다. 그분처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욕망은 없었다. 남편에게서 배운 정견이었고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어머니께서 출가하려는 아버지께 부처님 시줏돈으로 자식들을 키울 거면 속가에 있고 수행할 거면 출가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부재한 속에서도 자식들은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잘 자랐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출가한 충주의 할머니 절에서 크며 자연스럽게 법당을 드나들었다. 염불하시는 할머니 곁에서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하던 장사를 접고 사찰 사무장 겸 공양주로 사찰에 와있었다. 집이 사찰이었던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동네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골목대장이었다. 산 밑에 사는 친구 어머니들이 '사탄의 집에 놀러가지 말라' 고 경계했어도 뛰어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세상이 즐겁기만 했다.

그렇듯 건강하게 뛰놀던 아들이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를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절에서 나와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을 때였다. 툭하면 이유 없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누구나 겪는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거두어 입을 닫았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재수를 하던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시퍼런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으로 갔다.

> **시모, 남편, 자녀 모두 출가해**
> **충주시모 사찰서 자녀를 양육**
> **방황하는 아들 믿음으로 갱생**
> **"부처님처럼 살아가라"고 충고**

"어머니께서 음료수병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절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원해주는 스님이시고, 아버지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법사로 대중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방황하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네가 이렇게 살면 사회에도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나랑 같이 여기서 떨어져죽자. 싫으면 이거 먹고 같이 죽자.'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날로 격렬했던 사춘기가 끝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공부 끝에 취업해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출가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갈 길을 찾은 것 같아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스님도 기뻐했다.

스무 살이 넘어 만난 아버지 스님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도 다녀오고 정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45일 동안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이 불법과 인연이 깊음을 확신하고 출가를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 인연이 아니었을까. 집에서 가장 먼 해남 미황사로 갔던 아들은 사흘 만에 절을 나왔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그간의 일을 이실직고하고 이번엔 출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출가한 줄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의 실망은 대단했다. 무슨 일을 해도 경험해봐야 한다면서 지원해주던 어머니는 아들이 보기 싫다면서 앓아 누웠다. 생전 처음 본 어머니 모습이었다.

그러던 차에 동생이 출가했다. 불교학을 전공하고 복지관계 일터에서 열심히 살던 여동생은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겠다며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갔다. "엄마, 나 갈 게요"하고 마치 이웃집 가듯 손을 흔들며 딸이 출가하던 날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

"출가하던 안 하던 나는 진짜 오빠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정신이 번쩍 났다. 다시 세속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뇌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두고 얼마나 고뇌했던가. 돈을 버는 일도 그다지 즐겁지 않고 세속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동생이 출가하고 두 달 뒤, 이번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을 찾아갔다. 거기서 은사를 만났고 '경국(慶國)' 이란 법명을 받고 오랜 생을 걸었을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아버지 스님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길을 가라' 고 하셨고, 어머니는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라' 고 축하해주었다.

그리고 다음해 아들과 딸은 나란히 행자교육원에서 행자교육을 받고 계를 받았다. 딸스님은 졸업과 동시에 치러지는 5급 승가고시에서 수석, 아들스님은 4년 뒤 중앙승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출가를 응원, 지지했던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수행자다운 수행을 하면서 중생들과 함께했던 부처님처럼 살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네 식구들이 모이면 온통 부처님 이야기뿐이다.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나면 어려운 일들은 물 흐르듯 지나가 버린다. 수행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 스님의 법문도 듣는다. 서로를 보면서 활력소를 얻고 새롭게 발심한다.

"각자가 다 부처님이죠.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스님이 화답했다.

"힘들게 느껴질 때 어머니는 존재 자체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평생을 부처님처럼 사시겠다는 한마음으로 꿋꿋하게 삶을 일구어 오신 어머니를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한결같이 자식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출가의 길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수행자처럼 정진하고 사시죠. 어머니는 제게 인생의 스승이자 도반이고 든든한 지원자이시죠."

두 분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태산보다 더 큰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한 경국 스님의 10년 후, 그리고 더 이후의 경국 스님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해졌다. 어머니가 늘 꿈꾸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지 궁금한 것이다.

〈작가〉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㉓ 시간의 선후

이때 미륵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에 의혹이 생겨 일찍이 없는 일이라 괴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세존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수의 큰 보살들을 교화하시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머물게 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곧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선 태자 시절 궁전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셨으니,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짧은 동안에 크게 불사를 지어서, 여래의 힘과 여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시어 장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의 무리들을 설사 어떤 사람이 천만 억겁에 헤아린다 하여도 능히 다 세지 못하여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리니, 이들을 필시 아득한 예로부터 무량한 부처님들께서 온갖 선근을 심어 보살도를 성취하여 늘 범행 닦았음이 틀림없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렵겠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피부가 곱고 머리가 검어 나이 스물다섯 밖에 아니 된 자가, 백세 노인 가리키며 '이는 내 아들이다' 하며, 그 백세 노인도 이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니, 우리를 낳아 길렀다' 하는 것과 같아, 이 일은 좀처럼 믿기지 않나이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도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으시고, 이 큰 무리의 보살들 또한 이미 무량 천만억겁을 두고 불도 위한 탓에, 부지런히 정진해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고 나고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으며, 오래 범행 닦아 능히 차례로 온갖 선을 익혀 묻고 답하기를 잘하여, 사람 중의 보배라 온 세상에서 매우 희유하거늘, 오늘 세존께선 방금 말씀하시되, '내가 불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그들을 발심케 하고, 교화 · 인도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하였노라' 하시니, 세존께서 부처 되신 지 오래지 않은 터에 능히 이렇게 큰 공덕 있는 일을 하신 결과가 되나이다. 저희들 비록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설하시며, 그 말씀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 아는 바를 다 통달하신 줄 믿고는 있사오나 여러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부처님 멸도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혹은 믿지 않아 법을 부수는 죄업의 인연을 지을까 염려되나이다.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원컨대 설명해 의혹을 제거하시며, 미래 여러 사람들도 이 일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하소서."

경문에서 밝혔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법화경〉을 설할 때까지의 기간을 40년 정도로 본다. 그런데 〈종지용출품〉에 설해진 위의 내용은 부처님이 한량없는 백천억 아승지 보살들을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머물게 했다고 하시자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많은 보살들을 교화할 수 있었나 의심이 생겨 여쭌 말이다. 물론 이는 말세 중생들이 믿지 못할까 염려되어 물은 말이다. 구원성불(久遠成佛)을 내세우는 법화법문에는 시간의 장단이 없다. 이는 〈화엄경〉도 마찬가지다. 실교(實敎)의 실상법문(實相法門)은 시간이 곧 초시간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순간과 영원함이 하나가 된다. 따라서 찰나에 모든 불사를 다 마칠 수 있다. 이러한 말은 선(禪)에서도 해왔다. 〈선문염송〉 제1화에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으며,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해 버렸다" 하였다. 더 역설적인 말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일이 없다고도 하여 부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해 버리는 말도 있다. 중생의 의식세계에서는 고정된 상식으로 하는 계산이 있어 시간과 공간을 수리적으로 인식하려고 하지만 깨달음의 세계는 매우 높은 고차원이라 수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40년이란 짧은 세월에 어떻게 백천억 아승지 보살들을 교화할 수 있었느냐 물으면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적다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따지듯 여쭈었다. 세속적인 속제(俗諦)에서는 시간의 선후가 있지만, 출세간의 진제(眞諦)에서는 시간의 선후가 없는 것이다. 일념(一念)으로 보면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라는 선화(禪話)가 있듯이 영원한 현재가 되고 만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리이타의 진정한 보살행 실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㉓ 삼취정계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대승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익[自利]보다 다른 이의 이익[利他]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중생제도 자체를 보살행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로 인해 대승보살의 삶을 동경하더라도 선뜻 대승보살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승경전에 설해진 대승계는 어떻게 해야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섣부른 연민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10선업도와 계바라밀 등이 산발적으로 설해졌지만,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이 수지(受持)해야 할 계인 보살계가 구체적으로 설해진다. 특히 〈화엄경(華嚴經)〉에 나왔던 삼종정계(三種淨戒)는 유식학파(唯識學派)의 문헌인 〈해심밀경(解深密經)〉에서 불선(不善)을 되돌이키는 계, 선(善)에 들어가는 계, 중생의 이익에 들어가는 계로 명시된다. 그렇지만 이 경전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하지 않는다.

이 학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마음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보살계에 대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속에 간직한 동기를 문제 삼는다. 이 학파의 입장을 집대성한 문헌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유가론〉으로 약칭되는데, 가장 고층에 속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17지(地)로 구성된 본지분(本地分)이다. 이 가운데 제15지가 '보살의 정신적 단계' 또는 '보살의 정신적 기초'를 의미하는 보살지(菩薩地)이다.

그런데 〈유가론〉 전체는 현장(玄奘)에 의해 7세기에 한역되었지만, 보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5세기에 한역되었다. 하나는 담무참(曇無讖)이 한역한 〈보살지지경〉 10권이고, 다른 하나는 구나발마가 한역한 〈보살선계경〉 9권 및 1권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문헌은 〈보살선계경〉이지만, 최근에 〈보살지지경〉과 〈유가론〉과는 다른 전승계통의 번역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동일한 계통의 다른 번역으로 추정되는 〈보살지지경〉과 〈유가론〉 간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여하튼 4세기 중반 무렵에 인도에서 편찬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살지는 4종의 유가처(瑜伽處)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지(持) 유가처에서는 보살의 수행에 있어 근거나 기초가 되는 항목이 설해지며, 이 가운데 계품(戒品)은 보리분법(菩提分法)의 훈련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 품에서는 보살이 행해야 할 계바라밀이 9종의 관점에서 설해지며, 이 가운데 두 번째 일체계(一切戒)에서 보살계가 전개된다. 보살들에게 재가에 속한 계와 출가에 속한 계가 있는데, 이를 일체계라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3종류가 있는데, 즉 악을 방지하는 계, 좋은 일을 총괄하는 계, 중생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는 계이다. 즉, 모든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계는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삼취계(三聚戒) 또는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 한다. 담무참은 각각 율의계(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로 번역했다. 현장은 앞의 두 가지는 똑같이 번역했고, 마지막을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로 번역했다. 한편 구나발마는 계(戒), 수선법계(受善法戒),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하는 계[爲利衆生故行戒]로 번역했다. 따라서 3가지 요소가 포함된 보살계를 수지한다는 점에서 보살 간에 본질적인 구별은 없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㉓ 종교와 철학

석가모니 당시 세속주의자들 철학

〈사문과경(沙門果經)〉에는 석가모니와 아사세(阿闍世) 왕의 대화가 그려진다. 여기서 아사세 왕은 석가모니 이전에 만났던 여러 철학자들을 짧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육사외도(六師外道)들의 면모가 여기에 등장한다. 그 가운데 아기다시사흠바라(阿耆多翅舍欽婆羅)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곧 아지따 께샤깜발라(Ajita Keśakambala)가 그이다.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아마도 머리카락(keśa)를 길게 길러 담요(kambala)처럼 몸을 휘감고 다녔던 사상가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의 별칭일 뿐이다. 그가 출가사문과 같은 고행자였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의 철학을 흔히 유물론자의 선구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로 흩어질 뿐이며 인간의 감각이 다 공(空)으로 돌아가며 영혼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사세 왕은 이 현자를 찾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행을 하면 현세에 그 과보를 얻게 되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께샤깜발라는 그러한 아사세 왕의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는다. 즉, 그런 수행의 결과 따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마도 아사세 왕은 자신의 부친 빔비사라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종교적 수행이나 참회를 하기 위해 현자들을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아사세 왕이 찾아간 많은 철학자들은 그의 의중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제시한다.

〈사문과경〉의 의도에 따라 께샤깜발라의 대답은 아사세 왕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 것으로 그려진다. 수행의 업보가 존재하는지를 물었는데, 인간의 존재는 죽으면 4대 원소로 소멸할 뿐이며,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뿐이라고 답했던 것이다. 〈사문과경〉의 의도는 육사외도의 철학을 정확히 전달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을 불교의 가르침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사세 왕이 만났던 다른 외도들도 아사세 왕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답을 주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께샤깜발라와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이 철학자들은 아사세 왕의 종교적 관심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철학적인 관점만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윤리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윤회나 업보 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사외도 가운데 자이나교를 제외하면, 이들은 종교인들이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은, 불교가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윤회나 업 같은 인도 종교들의 형이상학적 전제들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께샤깜발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의 시발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내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께샤깜발라의 관점을 단멸론(斷滅論)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현재의 일회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것이며, 죽으면 다 원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인도 사상사 속에서 철학과 과학의 출발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석가모니 당시에 다시 등장한다. 그가 바로 빠야시(Pāyāsi)이다. 빠야시는 불교경전과 자이나경전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물로 태수 혹은 왕으로 묘사된다. 양측의 경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빠야시는 종교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려는 관점(자이나교)이나 윤회와 업보의 관념(불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은 석가모니 당대에 이미 업과 윤회와 같은 관념들을 조직화한 신흥종교들이 등장하는 한편, 이와는 정반대인 세속주의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들은 흔히 '로까야따'(Lokāyata)의 선구자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통 '유물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부절적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차라리 이들을 '아다르미까(adharmika)' 즉 비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한 것이다. 이 말이 만일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함축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속주의자'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릴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5호 | 17 | 전면광고

세 종류의 벗이 있으니, 이롭지 않은 것은
없애 주는 벗, 이로운 일은 만들어 주는 벗,
어려울 때는 버리지 않는 벗이라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 강의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3개월 후에는 술술 잘 풀도록 해드립니다.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스님들의농장 운영보살

❖ 도고온천에 2박3일
❖ 불자들은 무료로 콩새싹밥 칡밥에 도전하시고져 하는분
❖ 고졸이상 운전 컴퓨터 음악이나 글짓기
❖ 임명이 결정되면 준성직자 100일 교육
❖ 지장성모님 해탈세계 밝고맑은 사람들
만불사 043-745-3332
010-3410-0004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노전스님 모십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 • •
010-3525-9919

사찰 세무 및 회계 신고대행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찰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 사찰 회계 장부 및 결산서 작성 대행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전화 : 051-996-0308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 피

손에 잡히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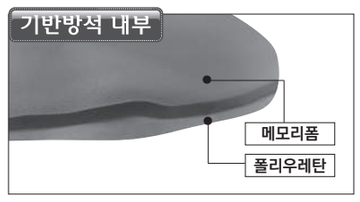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5호 | 18 | 전면광고

부처님의 좋은 방편, 크신 지혜로 우리의 어두운 무명 끊어 주시니 떠오르는 아침 햇빛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온 세계 비추는 듯하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반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 가액 12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28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3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235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7473-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위치 : 사찰(급)안내
- 부산동래구(부지 1천평, 건물4백평)
- 가액은 상담(방문)후 결정
- 전시컨벤션 ● 노인복지시설
- 불교명상센터및 힐링캠프
- 미래를 선도(先導)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추천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100평 ● 건물 : 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 3과(기증)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 절충가능 ● 전.월세 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청정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514
- 대지 85평
-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 가액 : 6천5백만원
-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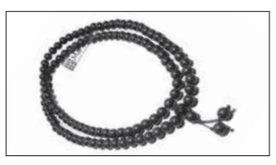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문수원(文殊院)



문수원은 석가원 동방의 상방에 위치하고 동문의 중앙에 있으며, 반야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주존(主尊)으로 하기 때문에 문수원이라 한다.

금강수원의 지혜가 본유(本有)라면 문수원의 지혜는 관조(觀照)의 수행으로 형성된 지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우측에 관세음보살, 좌측에 보현보살 등 총 25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상은 머리에는 5개의 상투관을 쓰고 있는 동자형이며, 오른손은 여원인을 하고 있으며, 왼손의 청연화는 번뇌에 때 묻지 않음을 나타내고, 그 위의 금강저는 번뇌를 타파하는 지혜의 작용을 나타낸다.

문수보살은 〈반야경〉의 교의를 선양하는 보살로서 미륵과 함께 출가보살의 대표이기도 하고, 묘길상이라 하여 뛰어난 지혜를 상징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⑫ 뇌전증장애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 인식개선 필요

사람들은 주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장애라고 알고 있지만 뇌전증장애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할 수 있는 장애라는 것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법정장애는 모두 15개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장애등록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되며 기존의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중증), 4~6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다.

올해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 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개정된 장애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이는(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정신장애는 기존 4개 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또한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장애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되었고 간신증후군, 정백류 출혈이 '심한 장애(중증)'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안면장애도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등록할 수 있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이 외에도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이나 가족, 지인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자신이 속한 구청 등에 장애 등록을 문의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장애 판정을 받아 등록하는 것은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초가 되는 일이다.

뇌전증장애(간질) 사회적 편견 심해
발작증세 없을 땐 '장애'로 인식 못해
장애인·비장애인 공감대 형성 중요



평소에는 '장애' 감지하기 힘든 뇌전증장애.

15개 장애인 범주 중에서도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한 장애가 뇌전증장애이다. 뇌전증을 예전에는 간질이라 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했던 간질이라는 용어는 2014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뇌전증장애의 발작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이 나타나면서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나며 경련과 발작으로 침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는 뇌전증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놀라기도 했으나 선생님께서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숨쉬기 편하게 기도를 확보해주고 2~3분간의 경련을 하다 멈추고 안정될 때까지 아이들에게도 당황하지 않고 필기를 하거나 책을 읽게 해 그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셨다. 그 친구는 꾸준한 항경련성 약물복용과 자기관리를 통해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뇌전증이 왜 어떻게 오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뇌전증장애인은 2017년 기준 등록장애인 254만명 중 6935명으로 약 0.3%이며 15개 장애유형 중 3번째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장애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뇌전증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는 10대 이전이 상당수라고 한다. 뇌전증은 천형(天刑)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뇌전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따돌림 당하거나 함께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장애를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인식을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시선을 바꾸어 가다보면 쉽게 뇌전증장애인임을 쉽게 밝힐 수 있는 시회가 될 것이다. 사찰에서 뇌전증장애인을 본다면 그들이 신행생활을 잘 하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뇌전증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뇌전증장애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장애라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이웃, 함께 수행하는 도반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⑫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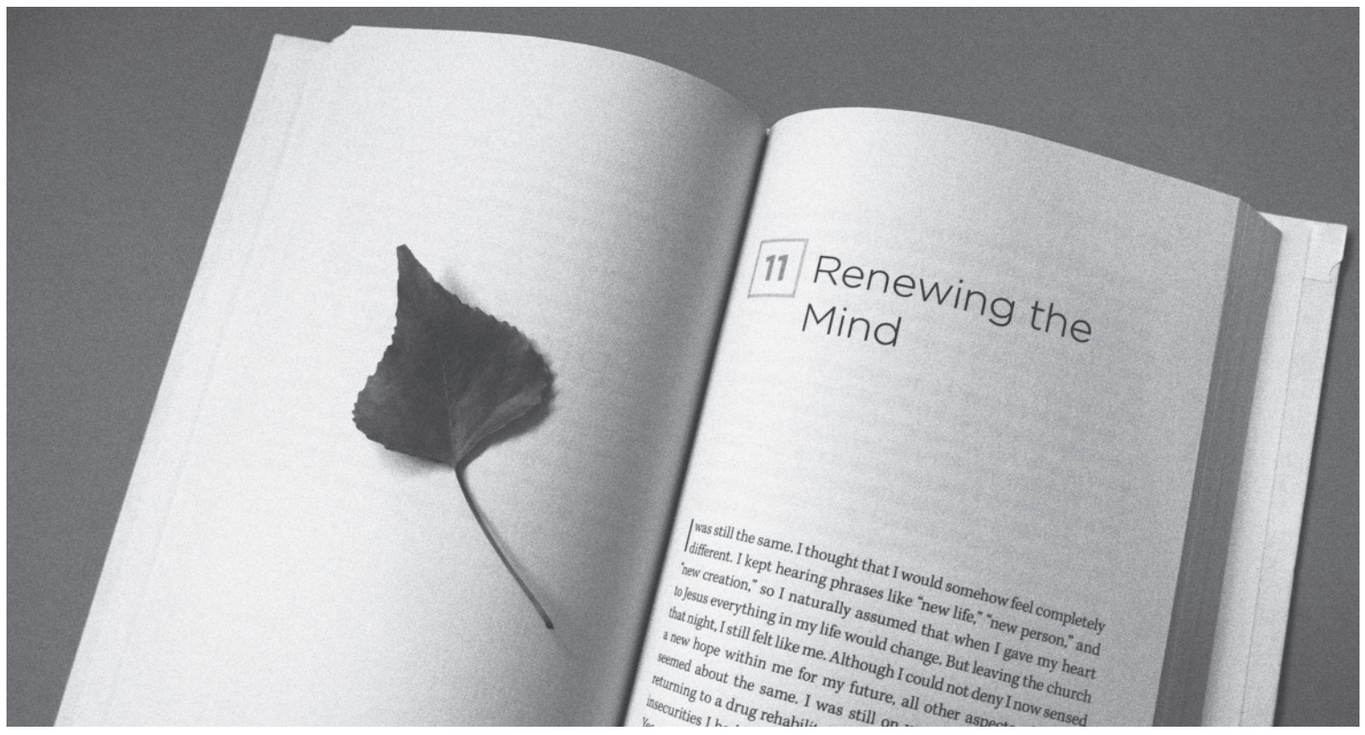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심신건강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대응하자

마음 비우면 몸이 치유된다



전홍준 박사는…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술이나 약물만으로는 완치되지 않고,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겪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나면서 '병이 아닌 병을 가진 사람 전체를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 자연치료와 심신의학을 배우고, 미국 위스콘신대학 의과학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의학사와 의학철학 펠로우십 과정을 밟으면서 의사 디팩 초프라로부터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의 전 과정을 배웠다. 이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수한 뒤 이 프로그램의 교사로도 활동해 왔다. 자연치료와 심신 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현대 서양의학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인치유 의학을 추구하고 있다.



단맛에 탐닉한 결과

나는 그때 왜 그렇게도 포도가 좋았던 것일까. 이육사의 시처럼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있는 것만 같은 포도송이를 성큼 집어 들고 한 알 한 알 맛을 음미하면서 내 몸 안에 집어넣으면 내 존재 자체가 그만큼 더 청푸르러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나는 포도에 집착했다. 그 계절 내내 포도를 먹고 또 먹었다. 저장 기술의 발달 덕분인지 겨울이 성큼 문앞에 들어설 때까지도 포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박스째로 포도를 사들이곤 했다. 한 박스에 가득 담긴 포도송이들을 혼자서 하루에 다 소화할 때가 있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특정 음식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갈망' 이라기보다는 내 안의 결핍된 무엇인가가 자꾸만 단맛을 끌어들였던 것 같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내 안에 자리잡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포도가 마트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그 해 겨울의 초입, 단맛에 지친 내 몸이 무엇인가 이상 신호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몸이 둔탁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솜을 한 섬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면서 몸을 움직거리기가 싫었다. 삶에 대한 의욕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불투명한 막 같은 것이 눈앞에 낀 것처럼 시력이 나빠졌다.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은 상태를 몇십 년째 유지해 온 터라 건강에는 평소 자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일제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동네 보건소에 들러 피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화혈색소가 11이어서,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선생님을 붙들고 '유념하고 건강 관리 잘 하겠으니 가장 가벼운 처방' 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그래도 혈압 등은 정상수치라면서 마지못한 듯 가장 낮은 단위의 처방을 내려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당뇨라는 병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이 책 저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난 보물 같은 책이 전홍준 박사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이다.

뿌리를 살려야 건강해진다

나는 이 책이 가리켜 보이는 '병과 건강의 원리' 같은 것을 깨우치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6.3이라는 기적적인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의사선생님도 놀랄 만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문리가 트여야 하고, 세상을 잘 살려면 물리가 트여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어떤 꽃이든 꽃은 뿌리에서 가장 먼 자리에서 피어나지만, 꽃에 뭔가 이상이 났다고 해서 꽃을 손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중심인 뿌리를 살려야 식물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아름다운 꽃도 기대할 수 있다. 전홍준 박사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을 '피의 오염' 이라고 지적한다. 맑고 건강한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꽃피우는 방법인 것이다.

혈당지수를 자주 체크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한 가지는,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 상태가 즉각즉각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탕 한 알을 먹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혈당이 놀랍도록 상승한다. 우리가 먹은 것이 온몸을 도는 피의 성분에 어떻게 그

잘못된 습관이 병 키워
음식 절제 중요성 대두
"'거룩한 허기'가 필요해"

렇게도 빨리 반영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우리 몸은 기적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신속하다. 우리 몸은 우리가 공급하는 음식과 활동, 정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즉각즉각 반응을 하므로, 병이 생겼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우리의 입력이 잘못되어 왔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입력이 조금 잘못되어도 곧 회복하는 탄력성을 발휘하지만, 잘못된 입력이 생활 습관이 되어 반복되면 몸은 정말로 심각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병이란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 과정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이런 생활습관은 핏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은 결국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함으로써 피가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게 되면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기 위해 심장과 혈관은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게 된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의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에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강하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지금 빡빡한 피를 머리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 혈관에 피가 잘 돌지 못하고 결국 피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당뇨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인체의 활동이다. 혼탁해진 핏속의 과잉 영양분이나 분화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되면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피의 오염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등의 성인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지방간, 통풍, 전립샘비대증, 관절 류머티즘, 다발성 관절염, 요통, 어깨 결림, 두통, 이명(耳鳴), 수족 냉증, 아토피, 습진, 건선, 비염, 축농증, 중이염, 하지정맥류, 치핵, 생리통, 자궁근종 등,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기는 외과적 질환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질병이 '피의 오염' 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암 또한 마찬가지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 이다.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거룩한 허기', 그리고 하늘 같은 마음의 회복

맑은 피를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내가 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인체에 부담을 주게 되지만, 적게 먹으면 인체의 세포들은 살기 위해 바짝 긴장을 함으로써 본연의 생명력을 발휘한다. 음식에 대한 탐닉을 통하여 당뇨병을 얻은 나는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었던 '채워질 수 없는 구멍' 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구멍은 음식이나 다른 탐닉거리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를 비움으로써 내 몸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강한 소리들을 듣게 되었다. 배고픔에서 오는 허기증을 은근히 즐길 수 있는 여유마저 어느 정도는 습득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내 몸을 되살리게 되는 허기는 그냥 허기가 아니다. 거룩한 허기다.

몸과 마음의 복합체인 인간의 건강한 생명력을 어찌 음식만으로 되살릴 수가 있겠는가? 음식을 탐하는 것이 병으로 나타났다면, 탐하는 마음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비워야 한다. 비움으로써 본래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거룩한 허기' 는 모든 생명의 본성인 '하늘 같은 마음' 을 되살리기 위한 '몸 비움 마음 비움' 의 과정이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심신의학에 접목한 대체의학의 대가 디팩 초프라, '의식 혁명 프로그램' 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명상을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아바타 코스' 를 창안한 해리 팔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운 전홍준 박사는, 음식의 정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나에게는 본래 죄가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 는 것이 우리의 바탕 생각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생명력과 자연치유 시스템의 실상을 알고,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작가〉

-제11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1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학술 및 사회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반야학술상 선정 기준**
공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학술 및 사회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1,000만원 지원함.

■ **추천(타천) 마감 : 2021년 7월 15일**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밀랍초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천연 밀랍 양초, 소이 양초를 개발, 유통중에 있습니다.
소량의 밀납 성분이 함유된 이름만 밀납양초가 아닌 **천연 밀랍 100%** 로 만든 티라이트 양초, 자갠들(유리병초), 연꽃초와 **향료, 색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천연밀랍과 파라핀을 혼합한 원기둥, 밀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대행 스님

무조건 근본에 말겨 놓고 그 빗장을 쥐고 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최종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6 · 25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문제들이 너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불자가, 그때 당시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아버집니다. 그런데 스님네들하고 항상 법담을 나누시고 항상 이 불법을, 마음을 공부하시다가 아드님 삼 형제와 따님 둘 해서 오 남매를 두셨습니다. 유복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정성이 지극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알아서 그랬는지 아드님을 딴 데로 피난을 보내셨습니다. 피난을 보내고 나서 그분들은 저 북괴군한테 죽 나래비로 모두 이렇게 엮여 가지고 새벽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오십 명 끌려갔는데 말입니다, 앞에서 총질을 하는데 난데없이 마음에서 '얼른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마음에서 나는 소리는 소린데 '이게 부처님의 소리인가 보다.' 하고선 그냥 푹 쓰러졌다는 겁니다. 푹 쓰러지고 보니까 자기 위로 사람들이 전부 총을 맞아서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신은 말짱한데 총에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자기 옷이 풍풍 젖더랍니다. '그래도 죽은 척하라.' 하고 또 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쯤 있다가 다 밝아서야 다시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저리고, 위로 모두 눌려 있던 터라 이거를 비집고 나오느라고 아주 혼났답니다. 그래 비집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몸은 피투성이고 도저히 뭐, 흉해서 걸어갈 수도 없더랍니다. 보니까 전부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복한 가정을 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후에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분들이 한 댓 분이 그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섯 분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은 죽었어도. 그게 우연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연히는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만치니까. 방에 있는데도 총알이 피해 가더랍니다. 장은 전부 뚫렸어도 그 사람은 감쪽같았답니다. 장이 전부 총알에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도 탈각 주저앉으면 요리로 비키고, 아래로 오면 또 위로 비켜 주고 이렇게 총알이 비켜 주니까 다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6 · 25를 치르고 아들 하나도 없애지 않고 또 그렇게 다복하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아슬아슬한 그러한 계기가 아니라면 그런 묘한 법을 그렇게 자기가 감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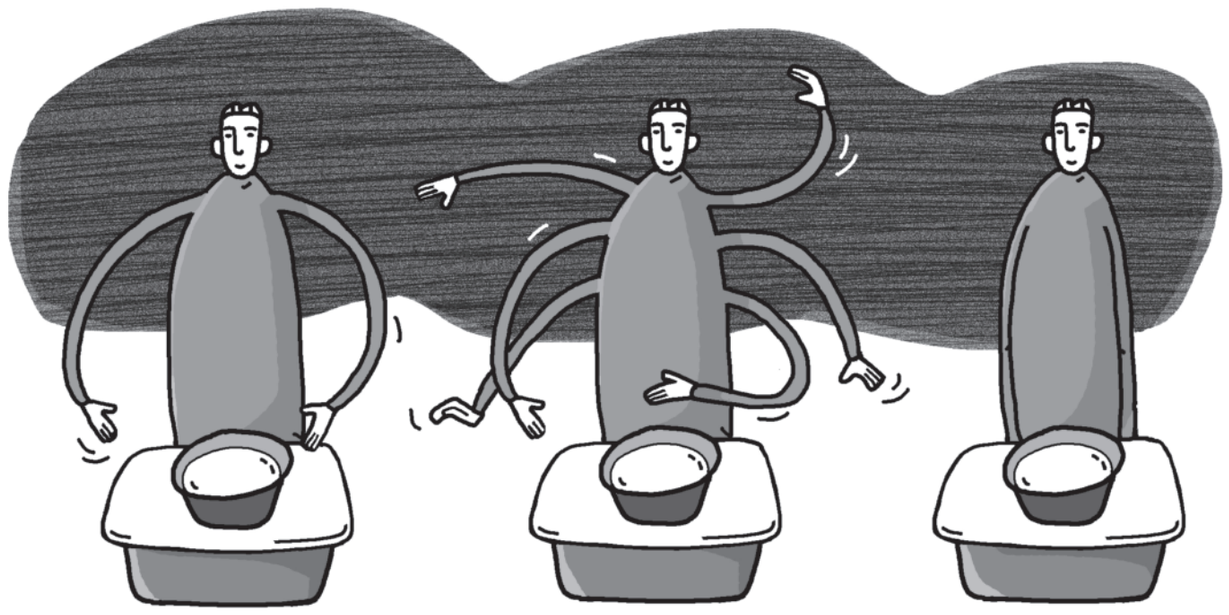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활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지켜보고, 자기가 한생각을 내놓기보다도 오관을 통해서 들은 거와 내가 내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언제나 그것을 보고 듣고 하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시장에 가는 길은 가르쳐 줘도 시장에 가서 시장 보는 일은 해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시장 가는 길은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서 이십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삼십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분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그것은 삼십만 원도 쓸 수가 있고 십만 원도 쓸 수가 있고 백만 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보는 일은 자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깨닫는 문도 천칠백 공안이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왜 천칠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 하면 '사방천' 이렇게도 됩니다.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천왕' 이러죠? '사방' 해 놓고 '천' 해 놓고 전체 돌아가는 거를 '도리천' 했단 말입니다. 전체 돌아가는, 일체 만물과 만생, 전체가 우주와 더불어 돌아가는 걸 '도리천' 했단 말입니다. 사방천왕도 천이요, 도리천왕도 천이요, 도솔천왕도 천이다 이거야.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의 한 점이 대천세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군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금이라는 물건은 하나인데 어째서 금 하나 가지고 수많은 물건이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이름을 각각 가지고. 또 금 하나로 인해서 수백 가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우주도 물질적인 어떠한 별성도 그렇고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는 데에 사람의 촉각이나 시각이나 식각이나 감각으로써 내고 들이고 삽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한다면 지능이 발달이 돼야만이 물리가 터지고, 또 물리가 터져야 지혜롭게 산다,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붙어 돌아가지마는, 종합돼 있는 거지마는 언제나 이름은 각각이 되죠. 조금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한데 합친다면 바로 지혜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얘기했듯이 불성 자체의 원자력이다. 근본. 우리가 무전자라는 불성 자체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데 그 생명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유전자의 생명도 활용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력과 원자력이 한데 돌아가는 데는 거기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열 개가 되고 열 개가 되면 백 개가 되듯이, 우리도 자식들을 낳고 살듯이 지구에서도 분비물이 어디까지나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즉 말하자면 그 모든 일체 만물이 살아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간에게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 촉각이나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나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나 식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쓰기만 하지 도대체 이것은…. 아니, 시각적으로 쓸 겁니다. 식각적으로도 못 써. 그건 흐릿해, 아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각이라 이러는 거는 모든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거를 첨보해서, 즉 말하자면 분별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청각도 백각도, 즉 말하자면 지각으로써 돌려라 이겁니다. 이 지각이 돌지 않는다면, 지혜가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근본의 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각은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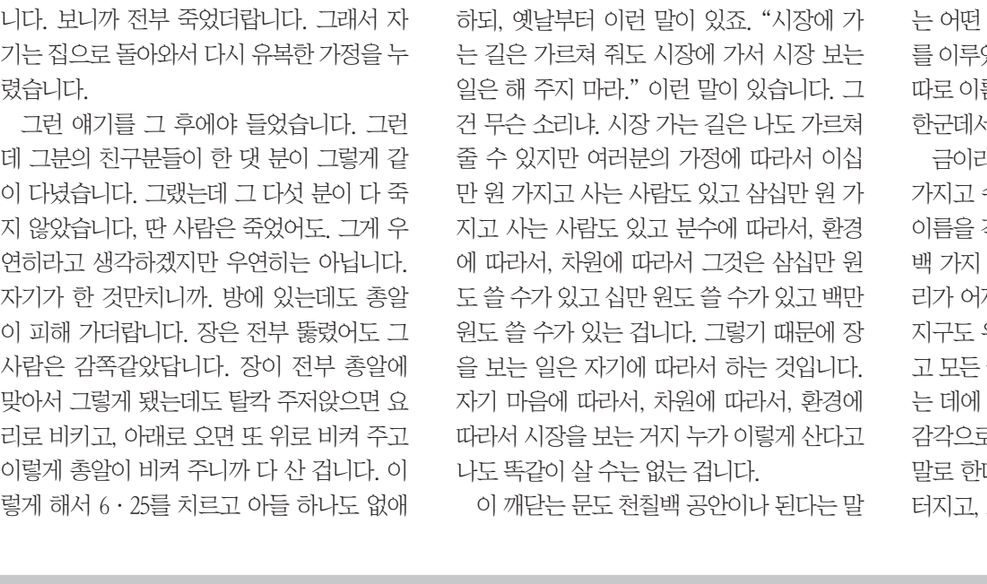
그런데 모든 게 첨보돼서, 각각 이름은 있지마는 그게 인간의 마음의 한 점이라는 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귀결돼서 가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또 무엇인가?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바깥과 상대성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하고 활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도 역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모든 일체 만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돼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자 한다면, 어저께도 오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신통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각으로 하여금, 마음의 지혜로 하여금 지각으로, 즉 누진으로 쓴다 이겁니다. 누진으로 쓸 때에 비로소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눈과 귀와 모든 게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에 있듯이, 이름은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천안통을 시쳇말로 망원경이라고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천이통을 천체 통신, 통신기라고 해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요, 남이 지나온 거,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고 그런 거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요,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요, 전체를 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전체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야. 왜? 그것은 보기만 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모든 거를 했으면 이것을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 하고 갖다 줄 줄 알아야 하고, 이걸 운영할 줄 알아야 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지혜의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한 점의 그 근원도 없는 것이 도니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수반이 되는데 지금 그

☞ 22면으로 계속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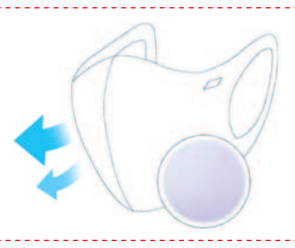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❶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❷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❸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여름용 마스크는 색상별로 최소주문수량 100개로 개당 판매가는 3,500원입니다.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아주 큰 힘이 일어납니다

☞ 21면에서 계속

것을 말한 것은, 우리 지리를 한번 봅시다. 이 땅의 문제가, 땅이 전부 금속이라고 한다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실의 실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는 금 하나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금으로만, 땅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보물이었던가를. 하나둘입니까? 보배는 땅속에서 다 나오는 거라. 물속, 땅속에서 다 나오는 거라. 물속도 땅이 없으면 물속이 없어요. 결부되지 않는다면 보물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지구의 근본 그 자체도 우리의 한마음 한뜻이다 이거야. 그건 왜? 지구의 근본의 그 원력이 돌아가면서 뜨거운 가스와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무슨 이산화탄소나 그런 현재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바로 그러한 원리로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뜨겁게 불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아주 큰 힘이 일어납니다.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고 흐트러지면 아주 차게 식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고 흩어지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모든 게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일을 해내지도 못하죠. 그렇듯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데 뭉쳐지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와서 이 온 누리에 모두 보배가 된 것입니다.

흙과 물과 나무, 풀과 모든 것이 전부 구워지면 구워지는 대로 보석이 되고, 구워지면 구워지는 대로 철이 되고 금속이 되고 또는 금이 되고 가스가 되고, 그 가스로 인해서 또 수없이 쓰게 되고, 물로도 쓰게 되고, 거기에서는 뭐든지 하나하나가 보배라. 그러면 습도로 인해서 우리는 전기도 쓰고 습도로 인해서 공기도 있고, 모든 게 땅속이고 물속이고 지금 지상이고 지하고 전부 공기가 통하고 있는 거라, 전부. 이 흙 하나하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보석의 근거지를 지금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그러한 한마음이다 이거야.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생명이 있고, 이것도 목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신인데 이걸 목신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을 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법상입니다. 이건 법상으로서 존재가 있습니다, 개성이 있고. 이것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한마음으로서 조금도 버리는 게 없이, 우리는 갖는 게 없으면서도 버리는 게 없이 겸손하고, 항상 내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 아래로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걸 나와 같이, 내 슬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쓰라림과 같이 생각하고 바로 나의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굴려 보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항상 단순하게 나는 나, 상대방에서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부화가 치밀면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혜가 없이 굴릴 줄을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익은 소소합니다. 언제나 큰 이익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솔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참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겁니다. 맡겨 놓으라는 얘깁니다. 참으라는 거는 그냥 '에이, 될 대로 돼라.' 하고 내버리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본 당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근본 당신은 개별적인 당신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당신이야. 포괄적인 원자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리의 풍수도 있고 모두가 풍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마는…,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산소를 잘 쓰면 천석꾼을 하고 산소를 못 쓰면 가난하다. 또 산소를 잘 쓰면 부모가 잘, 조상이 잘해서 우리가 정승 판서가 되느니 인군이 되느니, 무슨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거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일체 만법의 근원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 하나의 근원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면 뭣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 자리가 좋다 하면 그냥 좋은 거지 무엇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며 찾습니까, 좋은 자리를. 이게 전체의 보배 자리 한자리인데 자리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이며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패가를 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 남의 좋은 자리를 파버리고 자기네 조상 갖다 묻기 일쑤고. 지금도 좋은 자리 찾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리가 좋은 자리야. 간편하고 불편치 않게, 물 흘러가듯이 순수하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금은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없다. 옮겨 갈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얄팍하게 생각한다면 '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죽었으니 인제는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는 순간 벌써 이 모습으로도 전달을 했고 마음으로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죽고 사는 게 따로 없고,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공부를 하면 어디든지 '이 자리가 이 자리야.'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이 자리다.' 하면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것을 실천을 안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인내가 있고 패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좀 밀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자기가 감응이 되고, 절대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는 길은 가르쳐 줘도 장 보는 일은 가르쳐 주지 말라. 장 보는 건 자기가 봐야지. 그런데 얘기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러한 문제가 곁들여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 놓으면 또 역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착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디 가질 못하고, 부모 돌아가시면 떠나려고 영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숯을 구워 먹고살았어요. 그전에 제가 토굴에 있을 때 얘깁니다. 숯을 구워 먹고사는데 항상 토굴 옆으로 지나가거든. 그런데 숯을 구워도 그저 얼마 되질 않아, 다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이상스럽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토굴 문 앞에 사람들이 돈, 은전을 갖다 놓는 거를 제가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니까 너 보기 싫다.' 하고선 팽개쳤거든요. 그래 숯장수가 오면가면 주워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 숯장수를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바깥에 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숯을 지고 그 아래로 내려가요. 나는 버섯을 따려고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참인데 말입니다. 나도 먹어야 사니까 그랬겠죠. 철사 하나하고 성냥 하나하고 소금 조금하고 이렇게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전에 일본 사람들 하는 금광을 조금 같이 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저 춘천 뭐, 강릉이라나 어디에서 했다고 합디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더 해 봐, 거기 가서."

이 지리라는 것이, 이 맥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는 하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이 맥도 다 같이 한마음이 돼 버려.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맥이 있어도 안 보여. 마음이 그만큼 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앞에나 금맥이 보이는 거야. 금이 돌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삼이 도라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허!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한 법입니까.

거기서 자기 살 만큼 나오고 딱 그친 거야. 그러니 집 짓고 장사할 돈, 그거밖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그 무슨 가게야, 그게? 철물점? 그거 할 돈만 생겨 가지고 그거 해서 살아요. 그런데 밥은 안 굶고 형제들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끌어 나갔다는데요, 그 후에는 뭐, 물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지마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사람이 이 지리도 학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의 그 근본이, 벌써 내 마음이 피난처라. 이게 보배야, 모두가. 천체 만법을 활용하는 데도 그렇지마는 만법을, 내가 모든 거를 응용하는 데도 이게 근본이라. 보배라. (녹음 안됨) … 꺼내 쓰면 돼. 구태여 짊어지고 다닐 게 뭐 있나, 귀찮게.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안 다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거야. 가면 내 거고 거기 가면 내 자리고 가면 먹는 것도 있고, 가면 모두가 있는데 왜 그걸 짊어지고 다녀? 그리고 또 욕심을 낼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죠. 여러분은 짊어지고 가야 먹겠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것이 거기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리에 관한 것도 한마음, 이 한 점의 보배에 있다는 거요. (중략)

우리가 배우는 데는 아주 쉽게, "무조건 맡겨 놓아라. 맡겨 놓고 살아라. 무조건 거기에서 만법이 나온다. 만법은 오관을 통해서 그리로 든다.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거, 그 빗장을 쥐고 놓지 말아라. 언제나 들 때는 그거를 꼭 쥐어야만이 문을 열 수 있고 그거를 쥐어야만이 문을 닫을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배우는 분들이 앉아서 하는 것도 참선이요, 서서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요, 밥을 먹는 것도 참선이요, 변소에 가서 똥을 누는 것도 참선이요, 자는 것도 참선이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닙니다. 낮 밤이 따로 없고 동 서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고 윤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에너지가 수천수만의 에너지와 포함해서 돌아갈 수 있고 줄 수 있고 우리가 불릴 수 있다면, 본래 불려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알아서 쓸 수 있고 지금은 뭐, 기계를 갖다 대면 물이 흐르고 그런 것도 다 알지마는…. 그것도 기계를 갖다 대야 하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물건을 갖다 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 밑에, 몇 킬로 밑에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된 거를 다 알고 처리까지도 하거든.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기계를 갖다 대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만약에 6·25 같은 난리가 났을 때에 쫓겨 달아나가면서 그런 기계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나 죽을 데가, 나 살 데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쫓겨서 달아나가겠습니까? 피난 자리도 바로 내 마음에 있어.

그런데 오늘 모르는 거 죽어서 내일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있을 때, 부딪치고 다 상대가 있을 때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차원이 낮고 지금 모른다면 이 몸을 벗고도 몰라서 멍청하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육안으로라도 보지만 이 육이 떨어지면 눈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뭘로 보렵니까? 식이요? 식각으로? 또는 촉각으로나 감각으로 보고서, 그걸로 알고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 돼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데로나 들어가서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다면 또 한 생을 어떻게 보내렵니까. 그러니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게 여러분이 자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처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굴려보는 지혜를 갖는다면
>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2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 논단

디지털 세대차 극복하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6세 이준석, 당대표 선출돼
기성정치 불신 · 교체 '표면화'
세대 격차, 디지털서도 확인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들
페북 · 인스타 메신저 활용해
장노년층 40% 메신저 안 써
소통 방식의 변화 · 격차 확인

기성세대, 고정관념 내려놓고
MZ세대 가치관 이해 나서야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에서 0선의 36세 청년이 장 · 노년의 중진들을 누르고 제1야당의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정치권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정치인 자격시험제'와 '대변인 공개경쟁 선발제도'와 같은 기성 정치인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이슈를 제기하여 능력과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세대교체 요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잠복한 신구 세대 및 이해집단 간 갈등과 격차가 표면화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기성세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를 아우르면서 인간 본연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디지털 격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어나 뒤늦게 디지털 환경을 접하게 된 '디지털 이주민'인 반면,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신체의 일부처럼 다루며 성장한 세대이다. 마치 원주민이 모국어를 쓰듯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의미로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라고 불린다. 이주민의 언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원어민의 모국어 구사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디지털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틈새가 존재한다. 여기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항목에서 젊은 세대와 장 · 노년세대 사이의 디지털 격차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 이용에 있어서 디지털 원주민인 젊은 층이 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75.8%) 신뢰하는 반면, 장 · 노년층은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90%) 신뢰하고 있다. SNS 이용에 있어서는 젊은 층이 페이스북(71.0%)과 인스타그램(64.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장 · 노년층은 밴드(79.2%) 이용률이 높고,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84.0%)도 높다.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젊은 층(77.6%)과 장노년층(45.7%)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젊은 층(42.7%)과 장노년층(19.2%)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소통 도구로서 메신저 이용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카카오톡을 높게 이용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반면 중장년층의 10명 중 4명은 메신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시간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동형-고정형 매체를 오가면서 텔레비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영상 뉴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령층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보면 젊은 세대와 장 · 노년세대는 이용하는 매체와 SNS가 다르고, 이용하는 소통수단(메신저)에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대를 살아온 장 · 노년세대와 달리 고소득 국가의 시민으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는 가치관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MZ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경청함으로써 그들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기성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배워 활용하려는 변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이준석 현상'이 요구하는 젊은 세대와의 공감을 확대하고 세대 간 공존을 통한 공생의 삶을 성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걸음이 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변화시키는 명상 · 기도

우리는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처리를 못해서 답답할 때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메워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도움 받은 사람도 깨닫고 훗날 은혜를 갚을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이익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삶은 건강과 번영, 행복을 부릅니다. 소극적인 생각과 삶은 우울, 슬픔, 괴로움, 불건강 등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림 · 최주현

화분에 심은 꽃나무를 하루종일 그늘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햇빛을 쪼여주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밝은 햇빛은 식물에게 초록색을 주고 그 꽃에게 갖가지 색깔을 주며, 그 열매에 고운 빛과 달콤한 맛을 줍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되어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심으로 할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다. 나에게는 모든 장애가 없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 속에 솟아나는 것은 찬란한 기쁨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굳은 신념이 생기고 열정을 낳게 됩니다. 기도로 생긴 열정은 마치 전등을 밝히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이 생길 때 룰리베린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혈관 속에 흘러들어 와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실록 · 의궤 이제 제자리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13년 조선총독부가 도쿄대로 빼돌렸다. 이 실록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대부분 불에 타 재로 변하고, 외부에 대출된 74책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는 역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국권 침탈 기관이 일본왕실 행정기관에 기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후 1965년 이 두 문화재는 한일 환수 문화재 협정 목록서 빠지며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

이들 문화재를 환수 한 것은 2011년 오대산사고가 위치한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수위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원래 위치했던 오대산사고에 위치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 실록과 의궤박물관이 건립되고 현대화된 오대산사고가 자리해 보관과 연구, 장소적정성 등이 충족됐음에도 말이다. 오히려 중앙의 기관보다 최신 시설로 지어지고, 전문 연구 등이 가능한 곳이 오대산실록의궤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시대는 각종 문화재의 지역에서의 활용을 장려하고 문화분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에서의 문화재 집중관리가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권리를 뺏는 결과라는 취지에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오대산사고를 기리는 실록 · 의궤박물관에 위치해야 한다. 일제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반출할 당시 보관과 연구라는 명분을 들었다. 문화 분권 시대 흐름 속에서 정부는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의 중앙관리에 대한 명분이 역시 환수 전 일제가 내걸었던 명분과 다르지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20주년에 부쳐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한때 불교환경연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었다. 2000년대 전국적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던 시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관통도로를 저지하고 새만금 · 대운하 ·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종교계 연대활동과 탈핵운동, 빈그릇운동,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은 물론, 생태교육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의 존재는 불교의 대사회활동을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에 다름 없는 셈이다.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원탁토론회 '돌아보고 내다본다'에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아쉬움 섞인 제언들도 이어졌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의 전성기가 수경 스님과 도법 스님 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특정한 인물에 의존했다는 성찰도 이어졌다. 스님들의 부재 이후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대중 확장성이 미흡했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 비추어 불교환경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다양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났다. 불교의 가르침을 대사회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세대교체, 즉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학양성 및 교육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일궈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미래 20년으로 이어가기 위해, 뼈아픈 성찰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교국 주한스리랑카 신임 대사님이 부처님 치아가 실제 불치사에 모셔진 국보 사리탑 사진을 우호증진 징표로 최고의 성물을 법화사 법경스님께 증정하는 사진.

★ 위 성물을 가정에 모셔 섬기면 부처님 가피를 받아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

덕 높으신 스님께서 무엇이길래 미소를 지으시고 반갑게 합장하시며 맞이하실까? 신임 불교국가 주한스리랑카 대사님이 한국사찰에 우호증진 징표로 지리산 적멸보궁 법화사 방문하시여 법경스님께 증정하는 국보 사진액자.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가 실제 모셔진 사리탑 사진액자 성물은 최고의 가치이며 지인에게 보시행을 실천하시는 지리산 적멸보궁 법화사 법경스님 존경합니다.

★ 위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실제 사리탑 ★

사진 액자는 불자의 신앙 성물로 잘 될 사람이 인연 따라 모셔서 고요히 좌선하고 염주를 굴리며 천수경 화엄경약찬게 의상조사 법성게 반야심경 춤부다라니 등 번뇌를 깨뜨리는 불경을 독송하면 부처님을 잊지 않는 생각이 증장되며 수명이 늘며 건강이 좋아지고 지혜가 밝아져 기쁨과 즐거움이 갖게 되며 재물과 보배를 얻게 된다.

사바세계 모든 인연이 많지만 염불하는 즐거움은 무엇과 견줄 것 없네!



현)지리산 적멸보궁 법화사 법경스님.



현)스리랑카대사 Dr.A.Saj U.Mendis



전)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야기스리야 종정



전)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



현)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떼 종정



전)스리랑카대통령과 방필석법사 일행

인연 되서 모셔서 실천 한다면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 복덕을 받게됨를 부처님 가피를 조금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잘될 인연은 사고 팔 수 없고, 잘 되는것은 우연 자연이 없고 비유하면 농부가 봄에 씨앗도 뿌리지 않고는 가을이 와도 얻는 바가 없느니라 하여 이를 인과 법이라 내가 모든것은 실천하고 거두는 것이다.

前)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現) 스리랑카 불치사 말와떼종정님께 감사합니다.
現) 지리산 적멸보궁 법화사 법경스님 감사합니다.
現) 주한스리랑카대사님 Dr.A.Saj U.Mendis 감사합니다.

잘될 사람이 묻는 전화번호
문의 : 02)735-8259, 739-8259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